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지역의 메시지 프레이밍이 학습자의 장소애착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도시재생 텍스트를 중심으로-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이 민 주

지역의 메시지 프레이밍이 학습자의 장소애착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도시재생 텍스트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류 재 명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이 민 주

이민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7월

위 원 장 김 민 성

부위원장 류 재 명

위 원 최 재 영

국문초록

자기 자신을 가치롭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아존중감은 한 사람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이며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존중감 정립에 중요한 시기이다. 자아존중감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거주 지역으로부터 영향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어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가가 자신의 자아정체성 정도에 영향을 준다면 장소와 공간을 핵심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지리교육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인간이 등질적인 지역에 거주한다면 거주 지역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자아존중감은 고려 대상이 아니겠지만,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은 사회적으로 불평등하다. 이는 필연적으로 공간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역에 사는 학습자들은 잠재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학습자들은 지역을 감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 감정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인지, 정서, 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거주 공간에 대한 개인의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이 공간을 주관적이고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데 비해 교과서에 제시된 공간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다. 우리는 학습자에게 거주 공간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울 때 학습자의 자아존중감 함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교육은 학습자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요구받는다. 이때 학습자에게 적절하게 프레이밍(framing)이 된 학습 상황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

면 동일한 내용이더라도 교사가 학습 상황과 학습자료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학습자에게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 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불평등은 공간적 불평등으로 투영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는 도시재생을 통해 공간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별히 도시재생에 관심을 둔 까닭은 국민 10명 중 9명이 거주하는 삶의 터전이 바로 도시이기 때문이다. 급속한 산업화 이후 도시 내 지역 격차는 두드러지게 되었고 특별히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노후화, 부족한 기반 시설 등으로 열악한 생활 환경에 노출되기도 하며(도시재생기본방침, 2013)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그에 발맞추어 교실 안에서 학습자들이 그들이 사는 지역을 사회적, 경제적 비교 대상의 관점이 아니라 거주 지역 자체의 매력에 집중하여 새롭게 해석하는 힘을 키워준다면 학습자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메시지 프레이밍(framing)의 유형이 학습자의 거주 지역에 대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메시지 프레이밍은 감정적 메시지 유형으로 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과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으로 구분하였고 통제 집단으로 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프레미잉에 노출된 이후 장소애착감, 개인적 자아존중감, 집단적 자아존중감에 관한 후속 설문을 통해 학습자의 변화된 장소애착감과 자아존중감 정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거주 지역에 대한 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보다는 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가 학습자의 장소애착감과 집단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제시된 메시지 프레이밍에 관여도가 높을수록 실험 참가자들의 상상 몰입도는 증가하였으며 이 경우 집단자아존중감과 개인적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학습자에게 거주 지역을 물리적 조건에 상관없이 아름다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도시재생을 겪고 있는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의 학습자들에게는 그 효과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또한 교실 공간에서 거주 공간에 대한 해석 방향이 중립적이고 이성적이기보다 감정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주요어 : 감정지리, 도시재생 ,메세지프레이밍, 개인자아존중감, 집단자아존중감, 장소애착감

학 번 : 2019-25255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절차 ····· 5

Ⅱ. 이론적 배경 ····· 7
1. 프레이밍 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 7
1) 프레이밍 효과의 개념 및 유형 ····· 7
2) 프레이밍 효과의 매개변수 ‘관여도’ ····· 9
3) 프레이밍 효과와 지리교육 ····· 13
2. 사회정체성과 자아존중감 ····· 15
1) 사회정체성 ····· 15
2) 자아존중감 ····· 16
3. 장소애착감 ····· 20
4. 도시재생 ····· 23
1)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재생 ····· 23
2) 2015개정 교육과정의 도시재생 ····· 26

Ⅲ. 연구설계 ····· 29
1. 연구 가설 ····· 29
2. 연구 참여자 ····· 30
3. 연구 도구 ····· 32
1) 독립변수 ····· 32
2) 종속변수 측정방법 ····· 38
3) 종속변수 ····· 42
4) 통제변수 ····· 46
4. 연구 절차 ····· 48

Ⅳ.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50
1. 사전 동질성 검증 ····· 50
1) 사회교과 흥미도 동질성 검사 결과 ····· 50
1) 도시재생에 관한 지식 동질성 검사 결과 ····· 51
2. 실험 결과 분석 ····· 52
1) 프레이밍 효과가 장소애착감에 미치는 영향 ····· 52
2) 프레이밍 효과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55

Ⅴ. 결론 ····· 67
1. 요약 ····· 67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 70

참고문헌 ····· 73
부록 ····· 82

Abstract ····· 92

표 목 차

[표 1] 연구 절차 ····· 6
[표 2] 조절변인에 따른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 주요 연구 분석 ····· 10
[표 3] 2015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재구성 ····· 26
[표 4]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는 도시재생 ····· 27
[표 5] 실험참여자의 프레이밍 조건별 분포 ····· 31
[표 6] 독립변인 집단에 주어진 제시문 ····· 35
[표 7] 통제변인 집단에 주어진 제시문 ····· 36
[표 8] 각 메시지 프레이밍 강화 활동 ····· 37
[표 9] 개인적자아존중감 측정 문항 정보 ····· 43
[표10] 집단적자아존중감 측정 문항 정보 ····· 44
[표11] 장소애착감 측정 문항 정보 ····· 45
[표12] 도시재생 기본 개념 문항 정보 ····· 46
[표13] 사회 과목 개인적 흥미 문항 정보 ····· 47
[표14] 각 집단 간 사회교과 흥미도 비교 ····· 50
[표15] 각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 51
[표16] 장소애착감 전체 집단별 점수 비교 ····· 52
[표17] 장소애착감 전체 문항별 점수 비교 ····· 53
[표18] 개인자아존중감 집단별 점수 비교 ····· 55
[표19] 개인자아존중감 D남고·D여고 집단별 점수 비교 ···· 56
[표20] 개인자아존중감 D남고·D여고 문항별 점수 비교 ···· 57
[표21] 메시지 프레이밍 상상 정도 ····· 58
[표22] 상상 몰입도 비율 비교 ····· 58

[표23] 집단자아존중감 전체 집단별 점수 비교 ····· 63
[표24] 집단자아존중감 문항별 점수 비교 ····· 64

그 림 목 차

[그림 1] 지대차 ····· 24
[그림 2] 언어에 의한 지각적 판단의 편향 ····· 40
[그림 3] 상상 몰입 정보 측정 문항 ····· 47
[그림 4] 상상의 정도 분포 비교 ····· 59
[그림 5] B고등학교와 D남자·D여자고등학교 거주 경관 비교
····· 61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추구하는 첫 번째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또, 이 교육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첫 번째 역량은 다음과 같다.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 및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그 무엇보다 학생들의 건강한 자아정체성과 자신감 함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자아정체성[1)]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느낌과 인지를 뜻하는 심리학적 용어로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발달적 시기이다(Erikson, 1968). 이때 자아는 개인적 자아(individual self),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 집단적 자아(collective self)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개인적 자아는 성향, 특성, 흥미 등의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의 독특한 특성이고 집단적 자아는 외집단과 구별되는 내집단의 동일화를 의미한다. (Gaertner *et al.*, 2012).

개인적 자아마저도 사회 집단의 영향을 받는데 박아청(2003)에 따르면 개인의 정체성 형성은 그가 속한 사회집단 속에서 자기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나 타인과 비교 가운데 형성되며 Suls and Greenwald의 표현처럼 자기에 대한 지식이 자기 자신과 그가 속한 사회집단의 상호적 관계로부

1)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70166&cid=41991&categoryId=41991 (2021.5.23)

터 생기는 것, 즉 사회적 옷감에 의해 짜여지는 것과 같이 비유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개인적 정체성마저도 사회집단 속에서 규정된다.

이때 인간은 현존의 삶이 공간에 의해 의미 있게 규정되는 공간적 동물이며 공간 단위의 안과 밖으로 삶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구축하며 살아간다(조명래, 2011). 인간은 오랜 시간 매일의 경험을 통해 나고 자라는 과정 속에 특정 장소를 경험하며 개인이자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 물리적 공간에 대해 감정적이고 인식적 개념을 갖기 때문에(Knez, 2005) 공간과 자아정체성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다시 말해 인간의 사회집단은 공간을 제외하고 설명할 수 없으며 공간을 통해 인식된 감정은 자신의 자아정체성에 밀접하게 영향을 준다.

한편, Proshansky(1983)는 정체성 이론을 환경심리학 분야에 확장한 인물로 장소 정체성(place-identity)이라는 개념을 “자아의 물리적 세계에서의 사회화”로 정의했다. 즉, 자아정체성의 발달이 자신과 의미 있는 다른 사람, 사물 사이의 구별보다 더 나아가 그들이 발견한 공간과 장소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자아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환경인 장소와 공간을 강조한 것이다.

장소 정체성은 일관되게 선호하는 장소로 인한 환경적 자기 규제와 연관되어(Korpela, 1989) 장소애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소와 사람 사이에 긍정적인 감정적 연대를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이라고 하는데 특정 장소에 대한 강한 친밀감을 유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knez, 2005). 공간과 자아는 연결되어 있기에 거주 공간에 대한 장소애착이 발생하면 학습자들은 그 긍정적 감정의 장소에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 서도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즉, 장소애착 정도는 건강한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여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Erikson(1968)에 따르면 자아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즉, 자아정체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이 낮은 청소

년에 비해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고 자아정체감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Marcia, 1967; Mruk, 2006). 자아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은 관련성이 높은 개념으로 두 개념 사이의 직접적 관계성을 탐구하는 연구(이은경·박성연, 2011)나 자아정체성과 자아존중감 이 두 개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심층분석을 시도한 연구(신예진, 2017; 김미경, 2018)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자아존중감이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판단하여 학습자의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삶의 행복을 측정하는 많은 지수 중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김지혜, 2012) 이는 개인주의적 서양 문화권, 공동체주의적 동양 문화권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Diner and Diener, 1995). 하지만 공간 단위 사이에는 연결뿐만 아니라 대립 관계가 놓이며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사회적 관계는 지역 격차라는 공간구획으로 표현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강남과 강북 등의 지역 격차는 지역을 범주로 하는 구성원에게 부당하게 삶의 기회를 박탈하기도 한다(조명래, 2011). 민보경·정우성(2020)에 따르면 2016년도 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강북 3구(강북구, 노원구, 도봉구)의 지역주민 행복감이 서울시 평균이거나 평균 이하였으며,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행복감을 보인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행복에도 지역적 격차가 존재함을 증명하고,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 지역사회 수준의 요인이 행복에 영향을 미침을 밝혀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4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데 이는 곧 거주 지역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통계청, 2014). 따라서 같은 소득과 조건이라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주민들의 행복감을 달라질 수 있기에 지역주민의 주관적인 행복증진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변창흠, 2014).

이때 지리교육은 '동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019 청소년 행복 보

고서[2]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행복의 영역을 가정, 가정 경제, 학교, 동네 총 4가지 요소로 선정했으며 이를 통해 4번째 영역으로 동네라는 공간적 관점을 해석하는 방향이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준다(The Children's Society, 2019)

학교가 인격을 완성하고 건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본질적 역할을 고려했을 때, 지리교육에서 학생들의 지리적 지식의 확장뿐만 아니라 심리, 가치, 태도적 측면의 성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임은진, 2011). 다양한 주체 중 교육자들은 불평등한 공간에 거주하는 학습자들이 장소정체성을 통해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때 개인의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모습을 다루는 지리 교사들은 학습자에게 적절하게 프레이밍(framing)이 된 지역 상황을 생각해보게 하는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교사가 학습 상황과 자료를 어떻게 디자인하는가에 따라 학습자에게 장소애착과 장소정체성에 미치는 교육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교사가 거주 지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메시지 프레이밍을 제시하면 학습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공간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메시지 프레이밍의 유형이 학습자의 장소애착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했다. 그 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실적인 지리 메시지 프레이밍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The Good Childhood report 2019 보고서로 영역 4의 동네에서 청소년 불행에 미치는 요소는 네 가지다. 첫째, 청소년들은 학교를 오가는 길이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불행하다. 둘째, 청소년들은 동네 전체가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불행하다. 셋째, 청소년들은 동네에서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을 때 불행하다. 넷째, 청소년들은 범죄나 반사회적 행동을 경험했을 때 불행하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지역에 대한 메시지 프레이밍의 유형에 따라 학습자의 장소애착과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자아존중감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문헌 연구와 현장 실험을 병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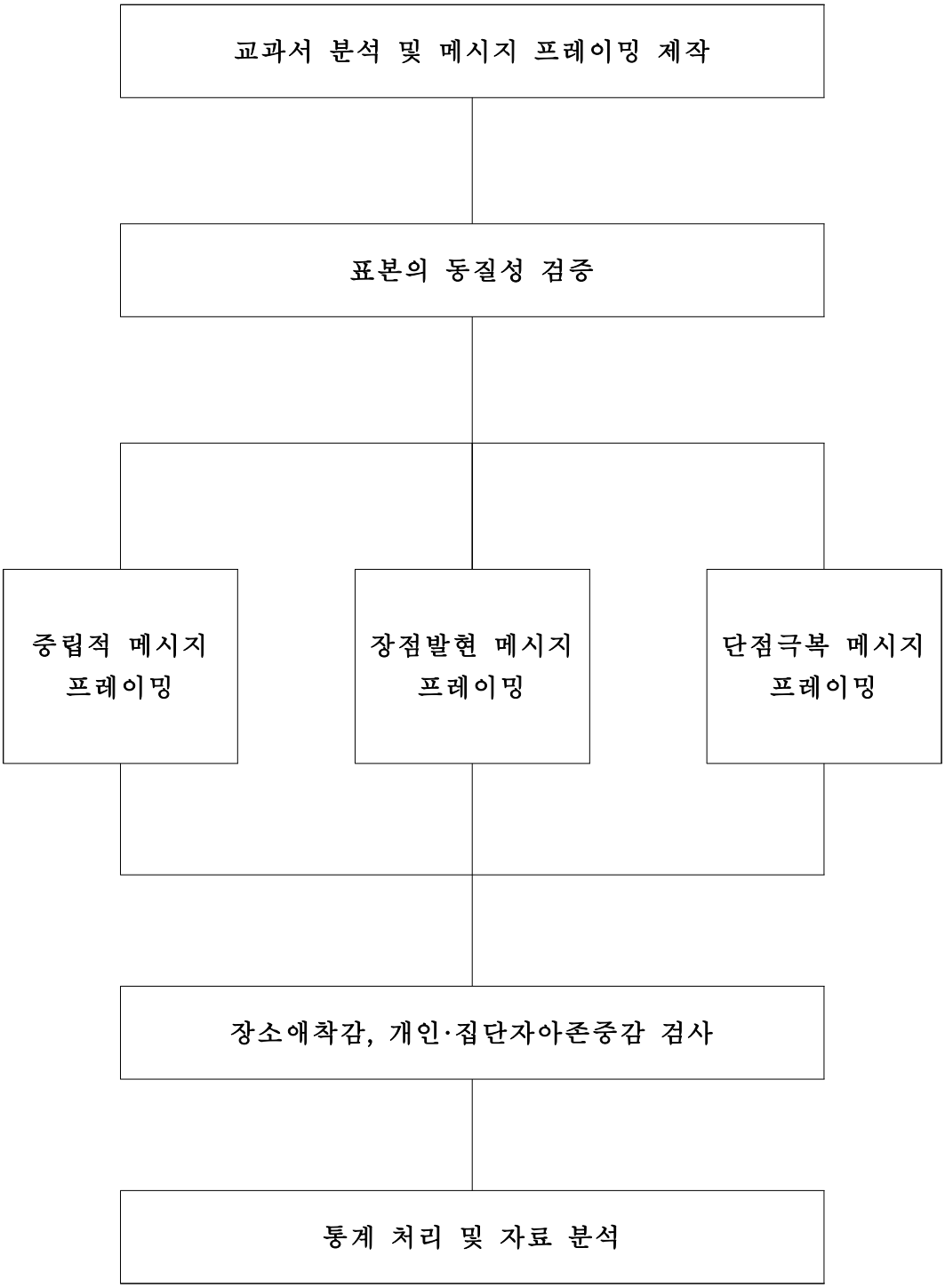
중학교 사회②와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를 분석하여 '도시재생'의 개념 서술 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메시지 프레이밍에 적절한 내용을 선별하였다. 선정 메시지는 도시재생 이야기이며 실험집단으로 장점 발현 메시지 프레이밍과 단점 극복 메시지 프레이밍으로 각각 제작하였고, 통제집단은 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으로 제작하였다.

본 실험 전인 2021년 4월 12일~4월 15일에 서울 강북구의 A 여자고등학교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 실험이 있었으며, 그 후 전문가 2인과 협의를 통해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본 실험은 2021년 4월 21일~5월 11일에 서울 노원구의 B 남녀공학 고등학교 179명(남 100명, 여 79명), 광진구의 D남자고등학교 110명, D여자고등학교 127명, 총 41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중 확인 문항에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상상에 몰입 정도가 3이하인 73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343명의 설문을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 과정은 사전에 실험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이루어졌으며, 실험 전 세 집단의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참가자들은 도시재생 기본 개념 이해도과 사회 교과 흥미를 묻는 각각 5개의 사전 설문에 응답하였다. 현장 실험 이후 설문지를 수합하고 SPSS 23.0을 활용하여 설문 응답을 통계처리하였다. 연구 절차의 과정은 <표1>과 같다.

<표1> 연구 절차


교과서 분석 및 메시지 프레이밍 제작
표본의 동질성 검증
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
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
장소애착감, 개인·집단자아존중감 검사
통계 처리 및 자료 분석

Ⅱ. 이론적배경

1. 프레이밍 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프레이밍 효과의 개념 및 유형

수업에서 메시지는 학습자를 설득시켜 행동으로 이끌어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메시지를 프레이밍 방식에 따라 학습자의 인지, 정서, 태도 변화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실 현장에서 교사에게 학습 메시지를 프레이밍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늘 요구된다.

프레이밍(framing effect) 효과는 Tversky and Kahneman(1981)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메시지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프레이밍 함에 따라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메시지 프레이밍이란 메시지의 특정요소를 선택하고 두드러지게 하는 과정으로(이명천·나정희·김지혜, 2006) 같은 정보도 어떤 프레이밍으로 제시하는가에 따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이르는 개념이다.

Tversky and Kahneman(1981)의 프레이밍의 효과를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예로 아시아 전염병의 발발에 대비한 방안에 대한 실험이 있다. 제시된 상황에서 미국은 600명이나 죽일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아시아 질병에 대비해야 한다. 이때 두 가지의 다른 대처 방안이 각기 다른 프레이밍으로 제시된다.

문제 상황 1 만약 대안 A를 적용하면, 200명이 살 수 있다. 만약 대안 B를 적용하면, 600명이 모두가 살 수 있는 확률이 1/3이고, 아무도 살지 못할 확률이 2/3이다. 당신은 어떤 계획을 선호하는가?

문제 상황 2

만약 대안 C를 적용하면, 400명이 죽을 것이다.

만약 대안 D를 적용하면,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이 1/3이고, 600명 모두가 죽을 확률이 2/3이다.

당신은 어떤 대안을 선호하는가?

문제 상황 1은 이익을 제시한 긍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이다. 이때 참가자의 72%는 대안 A를 선택하였고, 28%만이 대안 B를 선택하였다. 반면에 손실을 제시한 부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인 문제 상황 2에서는 참가자의 78%가 대안 D를 선택하였고, 22%만이 대안 C를 선택하였다. 문제 상황 1과 2는 결국 600명 중 200명이 살고 400명이 죽는 동일한 결과를 기술한 문장이지만 'save'라는 이익의 긍정적 프레임으로 제시하였는가 혹은 'die'라는 손실의 부정적 프레임으로 제시하였는가에 따라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거나 감수하는 확연하게 다른 의사결정을 보였다. 즉, 사람들은 각기 다른 프레이밍으로 제시된 문제 상황에서 상이한 선택을 하였다.

프레이밍 효과는 Tversky and Kahneman(1979)의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 바탕을 둔다. 전망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위험성이 내포된 행동을 채택하도록 권고하는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혜택을 강조하는 긍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의 경우 확실한 대안을 선택하고 손실을 강조하는 부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의 경우 불확실한 대안을 선택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메시지 프레이밍의 효과적인 전략에 대해 다뤘고 연구는 크게 긍정적인 프레이밍과 부정적 프레이밍의 상대적 효과성을 입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긍정적 프레이밍은 선택시 얻게 되는 이익을 강조하며, 부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은 선택 하지 않게 될 경우 잃게 되는 손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2) 프레이밍 효과의 매개변수 '관여도'

전망이론 역시 메시지 프레이밍의 상대적 효과가 주변 상황에 특징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 설명을 하지 못한다. 또한 대다수의 연구 결과들이 긍정적, 부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의 효과성에 대한 일관된 법칙을 설명하기 부족하여, 메시지 프레이밍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위해 조절변인에 대한 연구도 시작하게 된다.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는 여러 매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한 개인의 사전태도, 친숙도, 경험유무 등의 개인간 편차가 메시지 프레이밍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관심이 낮은 현 상황에서 매개 역할의 규명은 중요하다(조형오·이건세·윤수현, 1999). 따라서 동일한 메시지 프레이밍이라도 학습자의 태도, 지역, 경험 유무 등의 매개 변수에 의해 다르게 받아드려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두어야 한다. <표2>는 조별변인에 따른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 주요 연구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2> 조별변인에 따른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 주요 연구 분석

연구자	조절변인	연구결과
Maheswaran&Meyers - Levy(1990)	관여도	고관여(부정적 ↑)
Ganzach 등(1997)	실험상황(저관여)/ 현장상황(고관여)	실험상황(긍정적 ↑) 현장상황(부정적 ↑)
Shiv 등(1997)	관여도 (비교광고)	고관여(긍정적 ↑) 저관여(부정적 ↑)
김광수(1998)	관여도(비교광고)	고관여(긍정적 ↑) 저관여(부정적 ↑)
Donovan&Jeleh(2000)	유아예방접종에 관한 개인적 관련성	고관련성(긍정적 ↑) 저관련성(차이없음)
Obermiller(1995)	주제에 대한 관심 수준 수자원 절약(고관심) 에너지 보존(저관심)	고관심(차이없음) 저관심(부정적 ↑)
김재휘·박유진(2000)	주의 각성 수준: 환경에 관한 주제(고주의) 비환경 주제(저주의)	고주의 수준(부정적 ↑) 저주의 수준(긍정적 ↑)
Rothman 등(1993)	권고안에 대한 위험성 인식: 피부암 예방 행위(저위험성) 피부암 검진(고위험성)	여성(부정적 ↑) 남성(긍정적↑)
smith(1996)	교육 수준	높은 교육 수준(긍정적↑) 낮은 교육수준(부정적 ↑)
Rothman & Peter(1997)	성별	여성(부정적 ↑) 남성(긍정적 ↑)
조형오·김병희(1999)	사전 흡연태도	부정적 메시지는 긍정적 태도 집단에서 보다 부정적 태도 집단에서 더 효과적(Vice versa)
조재운·박보영(2001)	사전 지식 수준	초심자집단에서는 부정적 프레이밍이 구매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침

출처: (이종민·류춘렬·박상희, 2007를 재구성)

다양한 변수 가운데 대표적인 조절변인으로 [3]관여도의 역할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Celsi and Olson, 1988) 상대적 효과가 연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종민·류춘렬·박상희(2007)에 따르면 관여도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각자 연구에 사용된 관여도의 개념 사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일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부정편향성 이론(negativity bias hypothesis)에 따르면 사람들의 인상평가에서 긍정적 단서와 부정적 단서가 동시에 제공될 때 부정적 단서가 인상 평가에 상대적으로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때 메시지 관여도가 더 높을수록 긍정적 메시지 프레이밍보다 부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이고 관여도가 낮아질수록 긍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이었다(이종민·류춘렬·박상희, 2007).

반면 예상일치 가설(Expectancy-Consistency Hypothesis)는 부정편향성 이론이 실험상황에서 실험자가 긍정적 정보를 기대하는 상황에 놓여 부정적 정보에 대해 더욱 높은 관여도를 보여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따라서 부정적 정보를 기대하는 상황에서는 긍정적 정보가 더 관여도를 높이면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이종민·류춘열·박상희, 2007).

이종민·류춘렬·박상희(2007)는 광고 분야에서 관여도를 개인의 욕구, 관심 등의 개인적 관여도와 상품에 대한 관련성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적 관여도라는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를 정보처리관점에서 해석하면 개인은 메시지에 대한 정보처리를 주의집중 과정과 해석 및 평가 과정을 거쳐야한다. 이때 개인적 관여도는 순수하게 동기(motivation)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의집중 수준이며, 상황적 관여도는 해석 및 평가 과정으로 개인의 능력(지식)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실험 결과 상황적 관여도가 메시지 프레이밍에 대한 조절변인 효과가 유의미한 반면 개인적 관

---

3) 관여도는 “특정 상황에서 어떤 자극에 의해 유발되어지는 개인적인 중요성이나 혹은 관심도의 수준”으로 이와 유사개념으로 메시지 대상에 대한 관련성이나 관심 수준 또는 주의 각성 수준을 제시하였다.(이종민·류춘렬·박상희, 2007)

여도는 메시지 프레이밍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메시지 프레이밍의 효과를 위해서는 상황적 관여도가 높아야 하며, 이를 지리교육에 대입하면 지역에 대한 관련성이 높을수록, 즉 상황적 관여도가 높을수록 메시지 프레이밍에 크게 반응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3) 프레이밍 효과와 지리교육

메시지 프레이밍을 지리교육에서 활용한 연구는 크게 메세지와 이미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메세지와 관련한 연구로 유수진(2010)은 지리적 가치 문제가 담긴 환경보호와 세계 문화 이해라는 두 텍스트를 각각 긍정적, 부정적으로 메시지 프레이밍을 하여 학습자에게 제시하였다. 그 결과 환경 보호 텍스트는 부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이, 세계 문화 이해 텍스트는 긍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이 각각 설득 우위에 있으며 메시지 프레이밍 대상에 따라 상대적인 결과가 나옴을 확인했다. 박미진(2013)은 에너지 절약 행동에 따른 이득을 제시한 긍정적 프레이밍 메시지와 손실을 제시한 부정적 프레이밍을 감정이입 텍스트와 일반 텍스트에 대입하여 환경 태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감정 이입 텍스트에서는 부정적 프레이밍이, 일반 텍스트에서는 긍정적 프레이밍이 환경 태도에 더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미지와 관련한 연구로 이진희(2011)에 따르면 이미지를 활용한 프레이밍이 집단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지리 이미지를 활용한 프라이밍 집단의 창의성이 더욱 향상되었다. 이기령(2012)에 따르면 국제적 빈부 격차와 공정무역에 관한 참여 의지를 가지도록 하는 교육용 메시지를 구성할 때 부정적 이미지 사진보다 긍정적 이미지의 사진이 더 효과적이다. 박소연(2015)은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의 프레이밍 유형(긍정,부정)과 환경태도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주제인 자연환경을 다룬 사진이지만 긍정적 이미지 프레이밍이 부정적 이미지 프레이밍보다 환경 태도에 더 효과적이었다. 김혜원・정의철(2017)은 분리수거 대상이 연상될 수 있는 소재를 시각화한 쓰레기통과 같이 프레이밍 효과를 활용한 분리수거를 유도한 디자인 컨셉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메시지 프레이밍은 중립적 메시지에 비하여 감정의 영역을 고려한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기존 대부분의 교육 연구자들은 인지적 영역에 큰 관심을 두었다. 즉, 공간과 장소에 관한 교육적 연구들이 감정의 영역을 철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장소에 대한 교육에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Imamogˇlu, 2009; Kenway, J. and Youdell, D., 2011)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감정의 중요성은 지리 교육에서도 주장되고 있는데 임은진(2011)에 따르면 장소가 인간의 사유(thought)와 감정(feeling)의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최재영(2017)은 지리교육에서도 학습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적 요소가 지리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지적 요소 못지 않게 정서적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한동균(2016)에 따르면 지리에서 장소를 경험하는 감성적 측면은 장소 스키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공간적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Kopel(2014)는 공간인지 학습에서 몸과 마음 사이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다시 말해서 장소에 대한 주관적 경험과 감정적 요소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처럼 지리교육 분야에서도 감정지리학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2. 사회정체성과 자아존중감

1) 사회정체성

사회정체성관점(social identity perspective)는 사회 정체성 이론과 자기 범주화 이론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Tajfel(1982)의 사회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자아 개념(self-concept)은 개인적 정체성(personal identity)과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 2가지로 구별된다. 개인적정체성은 매력이나 지능과 같은 특성, 능력, 기술에 관한 신념으로 정의된다. 자기개념을 개인 행동의 독특성과 그 상대적 일관성에 무게를 두는 관점에 따르면(Turner and Onorato, 1999) 이를 개인적 정체성이라 볼 수 있다. 사회적정체성은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지식, 그러한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가치와 정서적 의미로 도출되는 자아 개념'으로 정의된다(Tajfel, 1987). 국적, 학교 등 다양한 사회 범주에 소속되며 얻게 되는 사회 정체성은 개인이 자기와 사회를 이해하는 참조 틀로서 기능한다(장미향·성한기, 2007; Stets and Burke, 2000). 사회정체성에서 자기의 개념은 개인이 몸담고 있는 사회관계에서 추출해낸다. 개인적 정체성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사회정체성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중심이 된다(이용재, 2008).

사람들의 자기 지각은 개인 정체성과 사회 정체성의 연속선을 따라 존재하며 비교 대상이 내집단이면 개인적 정체성이 더욱 발달하고, 비교집단이 내외집단 구성원을 모두 포함하면 사회정체성이 더욱 발달한다(Turner *et al.*, 1987). Tajfel(1982)는 사람들이 개인적 정체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체감도 긍정적으로 유지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전제를 갖는다. 성한기(2001)는 Tajfel(1978)이 사회 정체성을 집단멤버쉽의 인식(categorizaion 인지), 집단멤버쉽에 부여하는 가치(group self-esteem 평

가), 집단에 소속된 정서(group commitment, 감정)의 3차원을 기반으로 한 집단에 소속하여 집단 멤버쉽을 자기 개념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한국판 사회정체성 척도를 제작하였다. 요인으로는 집단 자아존중감, 자기범주화, 집단개입으로 3가지을 제시했다.

자기범주화이론(self-categorizaion theory)는 사람들의 자기 지각은 개인 정체성과 사회 정체성의 연속선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며 특정 개인 및 집단에 소속되어 범주화되면 범주에 동일시 하는 정도에 따라 내집단 규범에 동조 수준이 결정된다(Turner, 1982). 이는 집단이 지닌 고유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통한 설득에서도 외집단 구성원에 비해 내집단 구성원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Clark and Maass, 1988).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자아 개념의 평가적인 측면으로 자신이 가치롭다고 평가한 부분을 말한다. 즉,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은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자아개념은 개인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치 신념이라면, 자아존중감은 개인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평가를 전제한 정의적 반응이다.

자아 존중감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Rosenberg(1965)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는 곧 자신에 대한 정서적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형성 및 발달은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 진행되지만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Erikson(1986)은 청소년의 특징을 정체감 위기로 진단하면서 청소년은 삶의 의미와 되어야 할 자기모습을 찾기 위해 갈등하는 주체라고 하였다. 이때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후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Rosenberg, 1965). 이는 물 위에 떠돌아다니며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지속적인 성질을 가진다고 비유해 볼 수 있다(Bachman and O'mally, 1977).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발달에 중요한 자기표현, 인내, 자기 확신 및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인지적 요인으로(김지혜, 2012)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된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정서적, 학업적으로 성공한 삶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Rosenberg, 1965). 또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에 비하여 이후의 학업과 적응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치기에(Harter, 1988) 교육연구자들은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에 많은 연구를 한다.

박아청(2003)에 따르면 자아정체감은 반드시 2가지 조건을 갖추어야하는데 이는 개인의 통제하에 있는 자아정체감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으로부터 요구되는 자아정체감이다. 예를 들어 자신을 시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도 시인이라 생각해야하고 동시에 타인도 시인이라고 봐주어야 건전한 정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아정체감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집단적인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검사는 개인적 자아존중감 측정 검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사도구이다. 이는 자기 개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모두 평가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우 그렇지 않다'의 1점 척도부터 '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모든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Crocker and Luhtanen(1990)은 자아존중감이 개인자아존중감(personal self-esteem)과 집단자아존중감(collective self-esteem)으로 구별하고 집

단자아존중감에 있어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해 집단 자아존중척도(CSES: Collective Self-Esteem Scale)를 개발하였다. 집단자아존중척도는 멤버쉽, 사적, 공적, 정체적 하위 척도로 총 4가지 종류로 구성된다. 멤버쉽 집단 자아존중 하위척도는 개인이 집단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 집단에서 가치로운 구성원이라고 느끼는 정도를 묻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사적 집단 자아존중 하위척도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에 만족하며 자랑스러워 하는 정도를 묻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공적 집단 자아존중 하위척도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을 긍정적으로 보는 정도를 측정하는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정체적 집단 자아존중은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자신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정도를 묻는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된다.

개인 자아존중감과 집단 자아존중감은 서로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는데(Lahtanen and Crocker, 1991; 김혜숙 1993) 이를 통해 높은 개인 자아존중감이 집단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높은 자아존중감 유지를 위해 자신이 속한 집단을 더욱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김지경 외, 1999).

Kitayama와 Markus는 자아존중감은 문화권마다 중요도가 다를 수 있는데, 서양 문화권에서는 개인적 만족감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소속된 사회적 관계의 구성원 관점에서 공동체적 만족감이 중요하다고 고려한 바에 비추어(Diner and Diener, 1995) 우리나라는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가 동시에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기이며 특히 청소년기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짙기 때문에 개인적 자아존중감과 집단자아존중감의 추이를 동시에 고려해보는 것은 가치가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0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 조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을 묻는 문항으로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긍정적 답변을 한 청소년의 비율이 미국 89.1%, 중국 87.7%에 비해 한국은 75.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약함을 보여준다. 게다

가 우리나라는 계층 간 자아존중감의 격차 역시 크다. 다시 말해 부모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저소득층이나 저학력 가정의 자녀들은 자아존중감이 더 낮을 수 밖에 없다(통계청, 2014). 부모의 소득 수준은 곧 공간적 분리를 의미하고 다시 말해 거주 지역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3. 장소애착감

한동균(2016)은 Relph ,Tuan ,Cresswell와 같은 학자들이 주장한 공간과 대비되는 장소의 주관적이고 의미있는 특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구성물이자 개인적 경험에 의해 체화된(embodied space)공간으로서 장소를 강조했다. 장소는 물리적으로 구별되는 지리적 환경 그 이상의 의미로 사회적 상호작용와 기억의 맥락에서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특징을 갖는다(Stokowski, 2002).

장소 스키마[4]는 주관적 장소 경험에 대한 지식체계로 이는 감성적이며 암묵적인 특성을 지닌다. 장소 스키마는 장소와 관련된 개인의 인지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개인과 집단이 속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는다. 장소 스키마가 주관적인 개인의 경험과 감정에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스키마를 형성하는 지리교실에서 거주 공간에 대한 적절한 스키마 제공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건강한 장소 스키마를 형성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장소 스키마는 장소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Imamogˇlu, 2009) 자기정체성이란 정체성의 발달이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사물 더 나아가 공간과 장소로 확대될 수 있는데 보고 이때 자기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환경을 장소 정체성(place-identity)이라 한다. 즉, 주관적인 자아 개념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물리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장소 중심으로 풀어가는 것이다(임은진, 2011).

---

4) 스키마의 구성 개념들은 의미 있고 조직화된 형태로 장기기억저장소(long-term memory)에 저장되어 있는데(Warlaumont, 1997) 외부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면 관련 정보들이 장기기억속에서 활성화(activation)된다. 즉, 새로운 정보는 학습자의 인지구조 속 장소스키마와의 관련도에 따라 최종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매일 경험하는 물리적 환경은 특정 장소에 감정적 애착(emotinal attachment)을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기억, 느낌, 태도, 가치, 선호도, 의미, 행동 양식 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Proshansky, 1983). 장소애착감은 구체적 장소와 사람들의 애착 사이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이다(Williams and Vaske, 2003).

특별히 공간단위 관점에서 Manzo(2003)는 개인들은 집, 이웃, 지역사회와 강한 정서적 유대를 갖게 되며 자신이 누구인지 더욱 규정하게 된다. 더 나아가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경향을 결정하게 되고 곧 개인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Williams and Vaske, 2003).

지역사회 애착(community attachment)은 지역 사회에 대한 지역 주민의 감정적 연대감과 기여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소속감과 뿌리내림을 발달시킨다(Hummon, 1992; 김동환 2016에서 재인용). 공간에 대한 감정적 애착은 지역사회 애착과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Fried, 2000; Pretty, 2003). 이렇듯 장소 정체성은 장소 애착이라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장소 정체성은 개인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면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는 차별화된 공간 위에서 이루어지고 차별화된 정체성을 형성한다. 정체성은 행위자가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방법은 자신이 가진 이미지와 타인으로부터 이미지를 결합하며 형성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과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장소정체성을 토대로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최재헌, 2005). 장소 정체성은 개인이 거주하는 장소의 물리적, 상징적 특징을 기초로 하는 개인적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장소가 사람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기회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형성할 기회도 제공하기 때문이다(Kyle, 2004). 따라서 개인과 타인이 거주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다른 장소정체성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이렇게 규정되 장소정체성은 자신의 자아를 해석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장소정체성과 관련된 일련의 5가지 개념을 구별하는데 그 중 자아존중감(self-esteem)도 하나의 요소로 선정된다(Knez, 2005).

장소정체성은 자아존중감을 함양하는데(Korpela, 1989) 한 설문 실험에서 거주 기간이 높을수록 높은 장소 애착감을 유발하며 이는 개인의 개념적, 확장적 자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 중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 영역에서 마을에 구성원으로서의 만족감 정도와 자랑스러움 정도를 묻는 질문에 높은 장소애착감 실험자가 낮은 장소애착감 실험자에 비해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었다(Knez, 2005). 거주기간이라는 변수에도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받는다면, 장소에 대한 개인과 타인의 평가 역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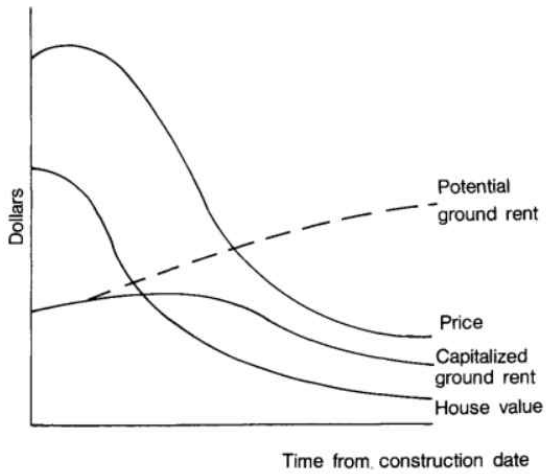
4. 도시재생

1)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재생

현대 도시는 역동적인 유기체로서 중심부에서(central zone)에서 주변부(periphery)로 기능이 작용하는 원심력(Centrifugal force)과 반대로 중심부의 기능이 유지된 상태로 주변부에서 기능이 옮겨오는 구심력(Centripetal force)이 상호작용하고 있다(Corby, 1933).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신정엽(2014)에 따르면 구심력 측면의 도시 공간 역동성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쇠락한 도심의 재생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상류층의 유입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논의는 크게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급 관점에서 smith(1979)는 <그림1>의 지대차(the rent gap) 개념을 활용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설명한다. 여기서 두 개념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자본화된 지대(capitalized ground rent)로 현재 토지 이용 하에서 토지 소유주가 책정하는 토지 지대의 실제 양으로 토지의 판매 가격(sale price)는 주택의 가치(house value)와 자본화된 지대의 합으로 정의된다. 다른 하나는 잠재적 지대(potential groud rent)이다. 그 토지가 최고의, 최적의 이용하에 자본화 될 수 있는 지대의 양으로 정의된다. 건설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화된 지대는 감소하고 잠재적 기대는 상승한다. 자본화된 지대와 잠재적 지대의 차이를 지대차라 명명하였고 이 지대차가 충분히 커지면 토지주인, 부동산 시장, 개발자 등에 의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다.

<그림1> 지대차



출처: smith(1979)

수요측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의는 산업 시대에서 후기 산업 시대로 도시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공간적 변화 양식이라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산업 시대의 제조업 중심에 비하여 후기 산업 시대에는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발달하고 이에 따라 전문직종의 중산층의 증가를 불러일으켰다. 중산층의 직업 구조, 소득의 변화, 삶의 양식이 점차 두드러지면서 그들의 수요에 따른 주택시장의 구조가 변화를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 원인으로 보았다. 즉, 새로운 전문 중산층 계급은 그들이 일하는 도시 중심가에 살면서 통근 시간을 줄이고, 문화적·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며 살고 싶었기에 중심과 이너시티(inner city)에 거주하고자 한 것이다(Ley, 1986; Hamnett; 2003).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재생, 도시 재개발 개념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신정엽, 2014).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는 기존 도시 정비 방식이 가지는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안정 정책 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중반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민주적 과정이자 낙후된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실천 전략이다(이영아, 2019).

도시재생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쇠퇴한 지역이 그대로 놔두기 아까운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한다는 점과 개발 과정에서 원거주민의 주거권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다르다. 즉, 단순히 물리적 환경 개선이 목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탈신자유주의 공간전략이다(이영아, 2019).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제2013-109호)에 따르면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를 비전으로 다섯가지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일자리 창출 및 도시 경쟁력 강화, 둘째,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셋째,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넷째,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 가치 및 경관 회복, 다섯째,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이다.

도시재생에서 다양한 역할 가운데 주민이 스스로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내며, 적극 참여하는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며 정주환경 조성 측면에서 삶의 질이 보장되고 쾌적하고 안전성을 위해 저소득층 및 노후 주거 밀집 지역 등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마을 단위, 지역거점 기준으로 공급하고자 한다. 도시재생 작업은 지역 정체성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는 과정(최재헌, 2005)임을 고려해보면 도시재생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의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지역 정체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새로운 지역 정체성은 기존에 강화된 스키마로 거주 공간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편견과 차별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에게(한동균, 2014) 공간을 해석할 새로운 스키마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시재생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도시재생과 관련한 내용은 통합사회와 한국지리, 세계지리의 도시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통합사회는 모든 학생들의 기본 필수 이수과정이므로 교과서에 도시재생에 관한 논의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3> 2015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재구성

영역	인간과 공동체
핵심개념	정의
일반화된 지식	정의의 실현과 불평등 현상 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실천방안이 요구된다.
내용요소	• 정의의 의미 • 정의관 • 사회 및 공간 불평등
성취기준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표3>은 2015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에서 공간 불평등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문제로 제시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서는 공간 불평등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 실천 방안이 담겨 있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현행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5종(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을 살펴보면 모두 도시재생에 대해 다루는 단원과 맥락은 다음과 같다.

<표4>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는 도시재생

출판사	단원명	다루는 내용
동아 (육근록 외)	Ⅵ. 사회 정의와 불평등 04. 사회 불평등의 올바른 해결 방안은?	**공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무 명시
미래엔 (정창우 외)	Ⅵ. 사회 정의와 불평등 03. 다양한 불평등 문제와 해결 방안	**공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자립형 지역 발전** 기반(지역 브랜드 구축, 장소 마케팅)조성
비상교육 (박병기 외)	Ⅵ. 사회 정의와 불평등 03.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	**공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사례들 병렬적 제시[5)] -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사업** 사례 제시
지학사 (이진석 외)	Ⅵ. 사회 정의와 불평등 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과 정의로운 사회	사괴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을 통합하여 개념과 이해를 다룸 - 행복하고 잘 사는 마을 공동체 설계 **통합주제탐구활동**[6)]
천재교육 (구정화 외)	Ⅵ. 사회 정의와 불평등 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과 개선 방안	**공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개발 방식인 **균형 개발** 소개

분석 결과 내용 요소에 공간 불평등의 개념은 다뤄지고 있으나 공간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추상적이며 전략에 관한 개념 소개 정도로 서술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5) 특산물 및 관광 자원 개발, 축제 개발, 화장장 등 기피 시설 공동 개발 협약, 공공 임대 주택, 장기 전세 주택 공급, 노후 불량 주택 개량,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등

6) 5종의 통합사회 교과서 중 유일하게 공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한 통합구제탐구활동이 제시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인간이 실존적 존재로 장소와 관계 맺기를 통해 삶을 영위해 나간다는 점에서 장소가 개인적이고 실존적임에 반해 학교 교육에서 다뤄지는 장소는 자신과 관련된 장소가 아닌 타자로서의 장소 교육이라는 비판처럼(임은진, 2011) 공간적 불평등과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도시재생도 타자로서의 장소 교육을 띠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지학사(이진석 외)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 다르게 공간 불평등 현상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실현된 마을을 소개하며,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공적인 마을 공동체를 소개하는 자료 만들기의 통합주제탐구활동을 제시한 유일한 교과서로 학습자 자신과 관련된 장소를 탐색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또한 오직 한 교과서에서만 다루고 있어, 전반으로는 도시재생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학생들의 경험치에 비해서 교과서에서 다루는 도시재생의 정보의 양과 분량은 적다고 분석할 수 있고, 타자와 된 장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가설

본 연구는 통합사회를 학습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의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에 따른 학습자의 장소애착감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에 관한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을 실험집단(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이 통제집단(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에 비해 장소애착감과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실험집단 내에서도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이 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에 비해 실험참가자의 장소애착감과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세운 구체적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지역의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에 따라 학습자의 장소애착감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장점발현·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 텍스트를 읽은 참여자는 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을 읽은 참여자보다 장소애착감이 높을 것이다.

1-2.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 텍스트를 읽은 참여자는 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을 읽은 참여자보다 장소애착감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지역의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에 따라 학습자의 개인자아존중감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장점발현·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 텍스트를 읽은 참여자는 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을 읽은 참여자보다 개인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다.

2-2.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 텍스트를 읽은 참여자는 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을 읽은 참여자보다 개인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3. 지역의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에 따라 학습자의 집단자아존중감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장점발현·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 텍스트를 읽은 참여자는 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을 읽은 참여자보다 집단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다.

3-2.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 텍스트를 읽은 참여자는 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을 읽은 참여자보다 개인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지역의 메시지 프레이밍이 학습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B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79명(남 100명, 여 79명)과 광진구에 위치한 D남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10명, D여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416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확인 문항에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상상에 몰입된 정도가 3이하인 73명의 자료는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 분석에는 총 343명의 설문을 사용하였다.

집단 구성은 편의표본추출로 세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한 실험에서 통제집단은 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을 읽게 하였고, 실험집단은 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 집단과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을 읽는 집단으로 배정하였다. 참여자들의 프레이밍 조건 간 성별 분포는 <표5>과 같다.

<표5> 실험참여자의 프레이밍 조건별 분포

	성별	인원(명)	백분율(%)
중립	남	65	64.36
	여	36	35.64
장점발현	남	48	41.74
	여	67	58.26
단점극복	남	44	34.65
	여	83	65.35
전체		343	

실험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선정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교육과정에따라 중학교 사회②에서 Ⅷ.사람이 만든 삶터 단원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재생[7]의 개념을 간단하게 학습한다. 중학교 3학년 때, 도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습득하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인지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시재생 관련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가 동일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7) 도시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지역의 산업이 쇠퇴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할 때, 이런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는 정책 ([사회②] 구정화 2015 개정 교육과정)

오래된 건물을 없애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함께 진행하는 사업 ([사회②] 박형준 2015 개정 교육과정)

3. 연구 도구

1) 독립변수 : 장점발현 • 단점극복 메시지프레이밍

본 실험은 지역의 도시재생에 대한 텍스트의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에 따라 학습자의 장소애착감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대조군으로 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을 설정하고 이에 대비하여 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과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을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여 학습자의 장소애착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도시재생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현재 전세계는 부의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이는 공간의 불평등로 재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에 관해 학습할 때, 공간 불평등은 핵심 내용 요소로 선정될 정도이다. 이때,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습자는 공간으로부터 자신의 자아 개념,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Korpela, 1989; Knez, 2005). 따라서 학습자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할 때, 특히 도시재생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학습자가 자신의 지역을 어떠한 프레이밍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도시재생에 대하는 지리교육자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험에서 활용되는 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는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들로 소개가 되며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지역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굴하는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개발하였다. 반면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은 지역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로 소개가 되며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지역이 오해와 편견을 개선하는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개발하였다.

과제를 개발하는데 있어 고려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에 대한 메시지를 감정적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Kenway, J. and Youdell, D.(2011)에 따르면 공간과 장소에 관한 교육적 연구들이 감정의 영역을 철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교육은 항상 이성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철학적 기저에는 이성적이고 논리적 연습 과정으로 가능하면 감정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활용의 형태를 지녀왔다.

따라서 기존의 지역의 특징을 중립적으로 기재하는 이성적 방식 대신 지역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담은 텍스트를 구성하였다. 류재명(2002)은 구체적인 학습 자료 전략으로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사실(fact)와 자료(data)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세 집단의 메시지 내용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채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메시지 내용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프레이밍의 차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가능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프레이밍의 형식만 달라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장점을 발현하는 텍스트에는 청정지역, 소박한 화초, 탁 트인 경관, 볕 좋은 자투리 땅, 지역 도서관의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지역의 단점을 극복하는 텍스트에는 기존의 지역이 산동네, 길가의 이끼, 녹슨 철문, 가파른 계단, 미로 같은 골목길, 버려진 자투리 땅, 쓰레기 문제등의 구체적이고 부정적인 어휘을 사용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둘째, 텍스트의 주제가 바람직한 도시재생에 관한 지향점을 자연스럽게 반영하고자 했다. 즉, 도시재생이 물리적 환경적 개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통합적(holistic)재생'(이광국·임정민, 2013)을 고려하여 텍스트에 반영하였다. 즉, 구체적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강조되고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다는 의미는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가 중요시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영아, 2019).

이영아(2019)에 따르면 도시재생과 관련된 435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는데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는 주민 참여, 거버넌스, 공유자산, 시민 역량 강화로 총 38%를 차지하였고 이는 도시재생 초기부터 꾸준히 공조된 전략이었다. 지역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통한 자율권 부여는 지역 격차의 중요한 해소 방안이다(조명래, 2011). 따라서 본 연구의 메시지도 '공간기획단'의 주민 참여 활동 내용을 통해 주민 참여를 강조한 도시재생 텍스트를 구성하였다. 또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은 경제적·물리적 재생 전략으로 노후해진 주거지역이었기에(이영아, 2019) 이를 참고하여 주거지의 도시재생 내용으로 서술하였다.

셋째, 학습자들에게 메시지를 두드러지게 표현하여 메시지 대비를 유도하였다. 예를 들어 장점 발현 텍스트의 경우 지역의 장점을 표현한 구절을 진하게 '**저층 주택 200여 채가 모여 사는 도심 속 청정지역**으로 **모퉁이에 심어진 소박한 화초들, 도심이 한눈에 보이는 탁 트인 경관**'으로 표현하였다. 이와같이 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과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이때 외부 요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메시지 내용과 활자적 입력 강화 단어의 수, 어구 길이등을 최대한 비슷하게 구성하였다.

넷째, 지역명과 성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 메시지 프레이밍의 지역을 '시영동'이라는 상상의 지역명과 중립적 이름의 '민주'를 사용하였다. 최재영(2017)은 이타적 과제와 공간성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험자들에게 나고르노카라바흐라는 선지식이 없는 낯선 지역명을 제시한 실험을 통해 지역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학습자들에게 낯선 '시영동'을 제시하여 지역명에 따른 학습자들의 선지식에 영향을 제거하였다.

<표6> 독립변인 집단에 주어진 제시문

유형	제시문
장점 발현	요즘 민주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 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굴하여 살기 좋은 시영동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시영동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저층 주택 200여 채가 모여 사는 도심 속 청정지역**으로 **모퉁이에 심어진 소박한 화초들, 도심이 한눈에 보이는 탁 트인 경관**이다. 민주는 **시영동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공간기획단'에 참여해 **별 좋은 자투리땅**에 들꽃을 심었다. 얼마 전에는 **동네 도서관 담벼락에 마을 풍경을 담은 예쁜 벽화를 그려** 더 산뜻한 공간으로 바꾸었다. 공간기획단의 활동 덕택으로 시영동은 **지역의 아름다움을 발굴**하여 활력을 되찾아 '살고 싶은 마을'로 선정되었다.
단점 극복	요즘 민주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 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여 살기 좋은 시영동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시영동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낡은 저층 주택 200여 채가 모여 사는 도심 속 산동네**로 **길가에 낀 이끼와 녹슨 철문, 가파른 계단과 미로 같은 골목길**이다. 민주는 **시영동의 오해와 편견을 개선**하는 '공간기획단'에 참여해 **버려진 자투리땅**에 들꽃을 심었다. 얼마 전에는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던 장소에 예쁜 벽화를 그리자 무단 쓰레기 투기가 사라졌다.** 공간기획단의 활동 덕택으로 시영동은 **지역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여 활력을 되찾아 '살고 싶은 마을'로 선정되었다.

<표7> 통제변인 집단에 주어진 제시문

유형	제시문
중립	요즘 민주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 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이다. 이 사업은 도시 환경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시영동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시영동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주택 200여 채가 북한산 자락에 모여 사는 도심 속 대표적 산동네**로 **가파른 계단과 구부러진 옛 골목길**이다. 민주는 **시영동을 위해 조직**된 '공간 기획단'에 참여해 마을 여기저기에 들꽃을 심었다. 얼마 전에는 **동네의 담벼락에 물감과 페인트를 이용해 벽화** 작업을 진행했다. 공간기획단의 활동 덕택으로 시영동은 점차 활력을 되찾아 '살고 싶은 마을'로 선정되었다.

<표6>과 <표7>은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작성한 메시지 프레이밍이다. <표6>은 독립변인으로 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과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이며 <표7>은 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이다.

또한 메시지를 읽은 이후 프레이밍을 한번 더 강화하기 위해 활동을 <표8>과 같이 구성하였다. 총 두가지 활동이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재배열, 두 번째는 재작성 활동이다. 구체적으로 재배열 활동은 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의 경우 '도시 환경 개선'이라는 문구를 재배열하는 과정을 통해 활자적 입력강화를 유도했으며, 장점 발현 메시지 프레이밍은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굴', 단점 극복 메시지 프레이밍은 '오해와 편견을 극복' 문구를 배열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재작성 활동은 실험참가자들은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시영동을 위한 사람들의 노력을 한가지 이상 찾아서 그대로 적는 활동을 통해 메시지를 강화를 유도하였다.

<표8> 각 메시지 프레이밍 강화 활동

유형	강화 활동
중립	1. <보기> 단어들의 순서를 재배열하여 윗 글의 밑줄 친 문장과 **똑같이** 채우세요. 이 사업은 _____ _____ _____을 통해 살기 좋은 시영동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보 기> ① 개선 ② 도시 ③ 환경 2. 윗 글에서 살기 좋은 시영동을 위한 사람들의 노력을 **한 가지 이상** 적어봅시다. _____ _____
장점 발현	1. <보기> 단어들의 순서를 재배열하여 윗 글의 밑줄 친 문장과 **똑같이** 채우세요. 이 사업은 지역의 _____ _____을 _____하여 살기 좋은 시영동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보 기> ① 발굴 ② 숨겨진 ③ 아름다움 2. 윗 글에서 살기 좋은 시영동을 위한 사람들의 노력을 **한가지 이상** 적어봅시다. _____ _____

단점 극복	1. <보기> 단어들의 순서를 재배열하여 윗 글의 밑줄 친 문장과 **똑같이** 채우세요. 이 사업은 지역에 대한 _____ 와 _____ 을 _____ 하여 살기 좋은 시영동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보 기> ① 극복 ② 오해 ③ 편견 2. 윗 글에서 살기 좋은 시영동을 위한 사람들의 노력을 **한 가지 이상** 적어봅시다. _____ _____

2) 종속변수 측정방법 : 상상 하기

" 실제 인간에게 유일한 리얼리즘은 체화된 리얼리즘이다."
(For real humna beings, the only realism is an embodied realism)
- George Lakoff

Fien(1979)가 제안한 사적 지리의 공간은 학생들이 직접 거주하고 경험한 공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방문한 지역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상상한 지역까지도 포함한다. 류재명(2002)은 초기 인간주의지리학자나 지리교육학자들이 사적 지리를 통해 객관적인 지리적 사실과 지식보다는 학생들이 몸을 통해 인식하고 나름대로 평가하는 '마음 안에 있는 지리(Geography in mind)'를 강조하였다.

이는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로 인간의 경험이 정보를 처리, 기억, 표상한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 마치 애플(Apple)의 모서리 디자인이 기계 작동이 순조롭게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듯이[8] 신체적 경험 및 지각의 시뮬레이션이 사고와 정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과제 해결을 위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심상(mental imgaery)과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데 특히 마음속으로 상상해보는 심상 활용은 언어 이해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다(김민성, 2019). Engelen(2011)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언어를 이해할 때, 문자 그 자체보다는 묘사된 상황에 대해 정신적 표상을 하고 이 표상을 상황모델(situation model)이라고 한다.

한 사물의 그림을 주고 녹음된 문장을 들려준 경우와 문장을 직접 읽은 후, 문장에서 언급된 사물이 그림의 그것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구별을 하도록 하였다. 결과는 문장과 그림과의 일치를 구별하는 실험에서 학습자가 지각적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비록 읽은 문장보다 들은 문장에서 더 빠른 반응속도를 보였지만 학습자는 문장을 읽을 때 지각적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다(Engelen *et al.*, 2011).

언어적 측면에서 긍정과 부정의 환경이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실험도 대표적이다.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사랑과 같은 50개의 긍정적 단어와 무례함과 같은 50개의 부정적 단어, 총 100단어를 랜덤하게 제시하고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단어가 얼마나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 결정하도록 했다. 그 이후 실제로는 하나의 도형이지만 참가자에게 밝기 수준이 다른 두 개의 사각형 중 하나를 제시한다고 안내하고 제시된 도형이 밝은지 어두운지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 단어를 보았을 때 도형을 더 밝게 판단하였다. 즉, 단어의 평가가 참가자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곧 지각적 판단에도 편향을 가져왔다. 곧, 인지적으로 긍정적 평가는 밝은 방향으로, 부정적 평가는 어두운 방향으로 편향되며 지각적 판단을

8)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34381&cid=58540&categoryId=58540&expCategoryId=58540 (2021.5.23)

유도했고, 이러한 판단 과정이 자동적임을 밝혀냈다(Meier *et al.*, 2007).

<그림2> 언어에 의한 지각적 판단의 편향

<출처: Meier *et al.* 2007 >

김민성(2019)은 동일한 활동이라도 어떤 시나리오와 맥락을 이용해 과제를 제시하는가에 따라 학습자가 주목하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체화된 인지 논의에 관심을 갖고 지리 교육 내에서 구체적 과제 개발에 관심을 갖고 체화적 경험이 작동하는 수업 디자인에 관심을 촉구하였다.

상상하기 활동은 언어를 통한 체화적 경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고 크게 지역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서 이는 인간의 사고와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텍스트는 구체적인 학습 방법의 하나인 상상하기를 활용하였다. 즉, 학습자가 시영동에 사는 민주라고 감정이입하여 상상하며 응답하도록 디자인되었다. 그 후 측정하고자 하는 종속변인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학습자의 지역애착감과 자아존중감이다.

종속변인 측정은 상상 접촉 활동을 활용한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적어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한성희, 2018). 상상 접촉(Imagined contact)은 실제 접촉이 없는 간접적 접촉의 형태이지만 자기 스스로가 상상을 통해 외집단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정신적 시뮬레이션이다. 즉, 간접 접촉의 형태를 띠지만 자신과 외집단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며 이는 실제 접촉과 비슷한 경험을 제공한다(Dovidio *et al.*, 2011).

Gregory와 연구자들은 미국 애리조나 탬플시의 79명의 중산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의 서비스 특징과 장점이 담긴 정보를 제공받는다. 41명의 통제 집단은 정보(information)만 제공받고, 38명의 실험 집단은 동일 정보를 상상(imagination)하도록 안내받는다. 즉, 통제집단에서 불특정다수를 위해 제공되었던 정보는 실험집단에서 당신(you)이 경험할 정보를 상상하도록 유도하는 작은 차이만 존재한다. 실험 이후 텔레비전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 7개의 설문조사 중 문항 4개에서 상상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텔레비전 회사의 서비스를 선호하고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후, 모든 참가자는 일주일 무료 서비스와 함께 구독 기회를 제안받았다. 무료 서비스의 경우 통제 집단에 오직 41.5%만 무료 구독을 승락한데 비해, 상상 집단은 65.8%를 승낙하였고, 실제 구독 신청의 경우 통제 집단이 19.5%인데 반해 상상 집단은 47.4%가 승낙했다. 즉, 상상은 단순히 판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Gregory *et al.*, 1982).

이러한 상상 접촉의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경험 연구들이 많은데 특히 뇌과학 분야의 성취를 주목해 볼만 하다. 즉 다수의 뇌 연구들은 물리적 세계의 신체적 경험은 머릿속의 상상이 뇌의 동일 부분에서 처리됨을 증명하는데 Ehrsson과 동료들은 실험참가자들에게 손가락, 발가락, 혀의 움직임을 상상하게 할 때와 실제 행동하게 할 때 뇌의 동일 부위가 관여한다는 것을 기능성자기공명영상을 통해 밝혀냈다(Ehrsson *et al.*, 2003; 김민성, 2019 재인용).

이봉민(2012)에 따르면 상상 접촉의 두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모의 활동이다. 모의 활동은 접촉 대상과 상황(맥락)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당신이 시영동에 사는 민주라고 상상하며 응답해주세요. 안내문을 제시하여 접촉 대상(민주)와 상황(시영동에 사는)을 둘 다 묘사하하는 형식으로 실험참가자의 상상 접촉 활동을 유발하였다.

3-1) 종속변수: 개인적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또는 태도를 의미하는 개인자아존중감(Rosenberg, 1965)과 한 개인이 사회집단의 소속 구성원으로서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인 집단자아존중감으로 구별한다.

실험참여자의 개인자아존중감을 확인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개인자아존중감' 척도가 대표적이다. 이 척도는 긍정적인 문항 5개와 부정적인 문항 5개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5점 Likert(1: 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청소년패널은 본래 10문장으로 이루어진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검사 중, 6개의 문항을 활용한 축소판 자아존중감 검사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측정한다. 3문항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보여주는 긍정문항이며 나머지 3문항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보여주는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많은 문헌 연구들은 긍정 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과 부정문항에 기반한 자아존중감 사이에 낮은 상관관계를 우려하며 자아존중감은 긍정문항을 기반으로 한 자아존중감과 부정문항을 기반으로 한 자아존중감이라는 이질적인 두 요인 즉 다른 차원으로 고려하여 살펴봐야 한다고 한다.

서울교육종단연구에서도 1차년도 설계 당시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측정 10문항 중 긍정문항 3문항, 부정 문항 3문항의 총 6문항으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으나 부정문항에 역코딩을 진행하더라도 긍정 문항과 부정문항을 하나의 단일 요인으로 분석하는 것 보다 각각 따로 분석하는 것이 신뢰도가 더 높게 나왔다. 따라서 2차년도 조사 이후부터는 부정문항을 3개 제외하고 긍정 문항 2문항을 추가하여 총 5문항으로 6차년도까지 조사하였다. 각 5개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형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기존 Likert형 5점 척도를 보완하여 모두 9점 Likert (1: 전혀 아니다, 9: 매우 그렇다) 척도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인자아존중감 척도의 각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문항은 <표9>에 나와있다.

<표9> 개인적자아존중감 측정 문항 정보

문항 번호	측정 문항
1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나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5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한다.

3-2) 종속변수 : 집단자아존중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집단자아존중감을 확인하기 위한 집단자아존중감(Crocker and Luhtanen, 1990)척도를 대상에 맞게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자아존중척도의 네 가지 차원을 모두 살펴보기 보다 사적, 공적 집단자아존중척도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소속된 집단은 개개인의 감정, 신념,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 의식을 측정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적 태도와 행동에 대한 큰 이해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김혜숙(1993)은 한국형 집단 자아존중 척도(KCSES)를 제작하였다.

사적자아존중감 척도의 각 문항은 리커트 9점 척도이며 '전혀 아니다' 1점부터 '정말 그렇다'의 9점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공적자아존중감 척도의 각 문항은 리커트 9점 척도이며 '전혀 아니다' 1점부터 '정말 그렇다'의 9점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7문항을 제시하였다. 자세한 문항은 <표10>에 나와있다.

<표10> 집단자아존중감 측정 문항 정보

문항 번호		측정 문항
사적	6	나는 가끔 내가 시영동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유감스럽다.
	7	일반적으로 나는 내가 시영동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8	전반적으로 나는 내가 사는 시영동이 가치롭지 못하다고 느낀다.
	9	나는 내가 사는 시영동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낀다.
공적	10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는 시영동이 무능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11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는 시영동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12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는 시영동이 무가치하가고 생각한다.

3-3) 종속변수 : 장소애착감

장소 애착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모든 정의에서 '장소' '사람' '감정'의 요소는 공통적으로 들어간다. 장소 애착을 통해 사람과 장소는 결속을 다지며, 주민들이 안정감 있게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돕는다(김동근, 2008).

소속감의 개념과도 비슷한데 소속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말한다. Baumeister and Leary(1995)에 따르면 인간은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때 긍정적 감정을, 충족되지 않을 땐 불안을 경험한다고 한다. 이는 소속감이 개인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밀접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소년과 관련된 소속감 연구로는 학교 소속감 연구가 대표적이다. Goodenow(1993)에 따르면 학교 소속감은 학생들이 학교 혹은 교실에서 맺어지는 관계 또는 사회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집단에 포함되어 집단의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고 느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학습 상황에서 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문제를 소속감이 완충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신종호 외, 2011).

학교소속감 척도과 관련하여 Goodenow(1993)은 학교 생활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학교 편안함과 관련된 문항 12개와 학교애착감에 관한 문항 6개로 총 18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소속감 척도 중 학교애착감을 박용진(2019)을 참고하여 장소로 변환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장소애착감 척도의 각 문항은 리커트 9점 척도이며 '전혀 아니다' 1점부터 '정말 그렇다'의 9점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측정 문항은 <표11>에 있다.

<표11> 장소애착감 측정 문항 정보

문항 번호	측정 문항
13	나는 내가 시영동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한다.
14	나와 비슷한 사람은 시영동에 적응하기 어렵다.
15	나는 때때로 시영동 주민이 아닌 것 같다.
16	나는 시영동에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과 매우 다르다고 느껴진다.
17	나는 다른 동네로 이사하고 싶을 때가 있다.
18	나는 시영동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4) 통제변수 :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전 지식의 양 및 사회과목에 대한 흥미 정도

본 연구에서는 3개의 메시지프레이밍 텍스트 유형에 학생들을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다만, 각 학교별로 동일한 텍스트 유형에 배정된 피실험자들 집단 간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단 간 동일성 여부를 도시재생 사전 지식 정도 및 사회 과목 개인적 흥미 정도를 검사하였다.

첫째, 도시재생의 메시지프레이밍 유형에 따라 종속변수인 학습자의 자아존중감과 지역애착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므로, 실험에 앞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본 개념의 동일성 검증이 필요하다. 모든 앎이 기존 지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사전 지식은 개인의 의미 형성에 있어 중요하므로(한동균, 2014) 기존 스키마의 내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표12>은 도시재생 기본 개념 측정 5문항이다. 도시재생 기본 개념 정도는 중학교 사회②, 통합사회 교과서를 참조였으며 이후 지리교육 전문가 1인의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표12> 도시재생 기본 개념 문항 정보

문항 번호	측정 문항	측정
1	나는 지역 간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공간 불평등이라고 생각한다.	○ / X
2	나는 재개발 사업은 개발 이익이 모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도시재생이 해당 지역 거주 주민 중심의 지역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추친한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공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5	나는 각 지방 자치단체들이 지역 발전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도시재생의 사례라고 생각한다.	

둘째, 사회 과목에 대한 개인적 흥미도에 따라 텍스트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회과목에 대한 흥미도 수준의 동일성 검증이 필요하다. 사회과목에 대한 개별적 흥미도는 학생들이 해당 과제나 과목에 대해 비교적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를 측정한 문항이며 (봉미미 외, 2012) 이를 과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표13>에 구체적인 측정문항 5개를 확인할 수 있다.

<표13> 사회 과목 개인적 흥미 문항 정보

문항 번호	측정 문항
1	나는 사회 과목이 흥미롭다.
2	나는 사회 과목을 공부할 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다.
3	나는 수업시간 외에도 사회 과목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
4	나는 사회 과목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5	나는 사회 과목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될 때 기쁘다.

셋째, 상상하기 방법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실험참여자의 상상 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상 정도를 리커트 9점 척도에서 체크하도록 하고 3 이하의 경우 상상의 몰입 정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결과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그림3>는 상상 몰입 정도 측정 문항이다.

<그림3> 상상 몰입 정도 측정 문항

당신은 **시영동에 사는 민주**라고 **얼마나 상상이 잘** 되었나요?

1 2 3 4 5 6 7 8 9

전혀 아니다 **정말 그렇다**

4. 연구 절차

1) 예비 실험 절차

본 실험 전인 2021년 4월 12일~4월 15일에 서울 강북구의 A 여자고등학교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 실험이 있었으며, 그 후 전문가 2인과 협의를 통해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사전 실험은 평소 수업 상황과 같이 개별 책상 배열이었으며, 실험 시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았고 모든 실험이 끝날 때 까지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하여 참여자 간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사전 실험 이후 실험 참가자들이 어려워 하는 어휘를 쉽게 수정하였고, 상상하기 안내 지문의 굵기와 크기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더불어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학생들의 상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여 보완하였다.

2) 현장 실험 절차

본 실험은 2021년 4월 21일~5월 11일에 서울 노원구의 B 남녀공학 고등학교 179명(남 100명, 여 79명), 광진구의 D 남자고등학교 110명, H 여자고등학교 127명, 총 41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중 확인 문항에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상상에 몰입 정도가 3이하인 73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343명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실험 장소는 평소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이었으며, 학교당 1명의 교사가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 개별로 설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사회 과목에 대한 흥미도와 도시재생에 관한 사전 지식을 묻는 설문지가 모든 실험자에게 공통으로 제시되었다. 사회 과목에 대한 흥미도는 학습자가 사회 과목을 얼마나 흥미롭게 생각하고 좋아하는지에 관한 5가지의 문장에 9점 척도(1 전혀 아니다, 9 정말 그렇다)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도시

재생에 관한 사전 지식의 정도는 도시재생에 대한 내용의 진위를 묻는 5개의 O, X 선지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이후 통제집단에게 중립적으로 기술된 도시재생 메시지 프레이밍 텍스트를 읽게 하였다. 이와 대조되는 실험집단에서는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한 집단에게는 지역의 장점을 발현하는 도시재생 메시지 프레이밍 텍스트를 읽게 하였고, 다른 한 집단에게는 지역의 단점을 극복하는 도시재생 메시지 프레이밍 텍스트를 읽게 하였다. 그 후 모든 집단에게 자신이 텍스트 속의 주인공이라 상상하며 주인공의 자아존중감과 장소애착감의 정도를 묻는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시사점

1. 사전 동질성 검증

1) 사회교과 흥미도 동질성 검사 결과

실험참가자의 사회교과의 흥미도에 차이가 학생들의 장소애착감 및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세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학습자의 사회 교과 흥미도는 고려대학교 두뇌동기연구소가 개발한 학생동기척도(SMILES)를 활용하여 수정 제작하였다(봉미미 외, 2012). 각 문항은 Likert 9점 척도로 수정하여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9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교과의 흥미도를 측정하는 5문항에 대해 연구자가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으로 세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표14> 각 집단 간 사회교과 흥미도 비교

문항 내용	실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값	ρ값
사회 교과 흥미도	중립적 메세지	101	4.89	1.85	1.06	.346
	장점발현 메세지	115	4.65	1.67		
	단점극복 메세지	127	4.97	1.76		

분석 결과, 본 실험에 참여한 세 집단의 사회 교과 흥미도는 F값 1.06, 유의 확률 .346(ρ> .05)으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각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2) 도시재생에 관한 이해도 동질성 검사 결과

실험참가자의 도시재생사업의 이해도에 차이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지역애착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세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 지식 정도로 교과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기본 지식은 중학교 사회 2-1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 제작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9점 척도로 수정하여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 의 9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5문항의 지식의 양 측정 항목에 대해 연구자가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으로 세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표15> 각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문항 내용	실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값	ρ값
도시재생 지식	중립적 메세지	101	3.02	1.00	.20	.815
	장점발현 메세지	115	2.94	1.03		
	단점극복 메세지	127	3.01	1.04		

분석 결과, 본 실험에 참여한 세 집단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F값 .20 유의 확률 .815(ρ> .05)으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각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2. 실험 결과 분석

1) 프레이밍 효과가 장소애착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의 장점발현, 단점극복의 형태로 표현되는 감정적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이 학습자의 장소애착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하위 가설을 가정하였는데 첫째 하위 가설 <1-1>은 감정적(장점발현 ·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 텍스트를 읽은 참여자는 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을 읽은 참여자보다 장소애착감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두 번째 하위 가설 <1-2>는 단점 극복 메시지 프레이밍 텍스트를 읽은 참여자는 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을 읽은 참여자보다 장소애착감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표16> 장소 애착감 전체 집단별 점수 비교

프레이밍 유형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중립적 프레이밍(A)	5.53	1.64	6.93	B>A,C*
장점발현 프레이밍(B)	6.33	1.62		
단점극복 프레이밍(C)	5.72	1.78		

($\rho<.05^{*}$)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결과인 <표16>에서 유의수준($\rho<.05$)에 따라 집단간 다른 메시지 프레이밍을 제시할 때, 실험집단(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은 통제집단(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에 비해 장소애착감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통제집단인 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 집단의 평균은 5.53이었고, 감정이 담긴 장점발현 메세지 프레이밍 집단의 평균은 6.33,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 집단의 평균은 5.72점 이었다. Scheffe 사후 분석한 결과 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 집단은 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 집단과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 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하위 가설 1-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감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에서 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이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기에 <하위 가설 1-2>은 기각되었다.

<표17> 장소애착감 전체 문항별 점수 비교

문항 번호	평균			F	Scheffe test
	중립적 프레이밍 (A)	장점발현 프레이밍 (B)	단점극복 프레이밍 (C)		
	101(n)	115(n)	127(n)		
1	6.38	6.70	6.81	2.31	A=B=C
2	6.23	7.12	6.58	8.77	B>A**
3	6.44	7.21	6.89	5.94	B>A*
4	5.77	6.48	6.21	4.70	B>A*
5	5.21	6.27	5.30	9.47	B>A,C*
6	5.85	6.39	6.13	2.61	A=B=C
합계 평균	5.53	6.33	5.72	6.93	B>A,C*

**ρ<.001 *ρ<.05

<표17>는 문항별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것이다. 총 6문항 중 1, 6문항을 제외한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ρ<.05)를 보였다. 2번 문항은 (ρ<.001)유의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해당 문항은 '나와 비슷한 사람은 시영동에 적응하기 어렵다.'이다. 해당 문항은 부정문항으로 역채점 했으므로 자신을 시영동 주민으로서 동일시하는 정도가 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이 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에 비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5번 문항은 '나는 다른 동네로 이사하고 싶을 때가 있다.'로 통제집단과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 집단에 비해 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 집단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5번 문항은 자신이 동네를 좋아하는 정도라고 해석했을 때, 지역의 장점을 인식한 집단 일수록 동네에 대한 만족감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장점발현 메세지 프레이밍은 중립적·단점 극복 메시지 프레이밍 보다 학습자의 장소애착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프레이밍 효과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가. 개인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에 따라 학습자의 개인자아존중감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하위 가설을 가정하였는데 첫째 하위가설 <1-1>은 장점발현 ·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 텍스트를 읽은 참여자는 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을 읽은 참여자보다 개인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두 번째 하위가설 <1-2>는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 텍스트를 읽은 참여자는 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을 읽은 참여자보다 개인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개인적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문항은 총 5문항으로 각 문항에서 1점에 가까울수록 개인자아존중감이 낮고, 9점에 가까울수록 개인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총 3개 집단(2개의 실험집단과 1개의 통제집단)의 개인적자아존중감을 비교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Scheffe 사후분석을 이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18> 개인자아존중감 집단별 점수 비교

프레이밍 유형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중립적 프레이밍(A)	6.07	1.58	2.68	-
장점발현 프레이밍(B)	6.55	1.44		
단점극복 프레이밍(C)	6.37	1.54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결과인 <표18>에서 유의수준(ρ<.05)에 따라 집단간 다른 메시지 프레이밍을 제시할 때, 실험집단(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과 통제집단(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과 비교하여 개인자아존중감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연구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또 실험집단 내에서 장점 발현 메세지 프레이밍과 단점 극복메세지 프레이밍 사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기에 연구가설 2-2도 기각되었다.

<표19> 개인자아존중감 D남고·D여고 집단별 점수 비교

프레이밍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중립적 프레이밍(A)	66	5.88	1.51	7.05	B,C>A*
장점발현 프레이밍(B)	74	6.70	1.24		
단점극복 프레이밍(C)	75	6.61	1.48		

*ρ<.05

<표19>의 분석결과, 실험을 실시한 B공학고등학교가 아닌 다른 지역의 D남자고등학교와 D여자고등학교만 따로 떼어보았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립적 프레이밍 집단의 평균은 5.88점이었고, 장점발현 프레이밍 집단의 평균은 6.70점, 단점극복 프레이밍 집단의 평균은 6.61점이었다. 중립적 프레이밍 집단에 비해서 장점발현 프레이밍 집단은 0.82점 높았고, 단점극복 프레이밍 집단은 0.73점이 높았다. 그 결과 세 집단 간의 개인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이후 Scheffe로 사후 분석 한 결과 중립적 프레이밍 집단에 비해 장점 발현 프레이밍 집단과 단점 극복 프레이밍 집단이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냈다. 즉, 참가자들은 중립적 프레이밍에 비해 감정이 개입된 장점발현 프레이밍과 단점극복 프레이밍에 노출되었을 때, 개인적 자아존중감이 높아졌다. 따라서 D남자고등학교와 D여자고등학교는 연구가설 2-1이 채택되었다.

<표20> 개인자아존중감 D남고·D여고 문항별 점수 비교

문항 번호	평균			F	Scheffe tset
	중립적 프레이밍 (A)	장점발현 프레이밍 (B)	단점극복 프레이밍 (C)		
	66(n)	74(n)	75(n)		
1	6.15	6.63	6.69	3.06	A=B=C
2	5.65	6.57	6.39	6.75	B,C>A*
3	6.08	6.93	6.75	5.66	B,C>A*
4	5.89	6.79	6.71	6.11	B,C>A*
5	5.61	6.57	6.53	6.10	B,C>A*
합계 평균	5.88	6.70	6.61	7.05	B,C>A*

*p<.05

<표20>은 D남자·여자고등학교의 문항별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총 5문항의 개인자아존중감 문항별 영역에서도 1번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에서 높은 개인자아존중감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2번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3번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4번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정도, 5번은 자신에 대한 만족 정도를 묻는 문항이었다. 즉, 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에 비해 감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장점발현 · 단점극복)에 노출될 때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체 실험참가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개인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지만 동일 지역의 두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은 도시재생 텍스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 특성이 유사하여, 즉 상황적 유사성이 높아 상황적 관여도라는 매개변수가 개입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B고등학교와 D남자·여자고등

학교의 메시지 프레이밍의 상상 정도가 차이나 나는지 t-test를 통해 확인하였다.

<표21> 메시지 프레이밍 상상 정도

학교	N	경관	평균	표준편차	T	P
D고 (가)	237	빌라	5.73	1.89	2.29	0.022*
B고 (나)	179	아파트	5.31	1.87		

*p<.05 (D고는 D남자·여자고등학교를 포함)

<표21>는 실험참가자 전원의 메시지 프레이밍 상상 몰입도의 t-test 분석 결과이다. Likert 9점 척도로 1은 전혀 아니다에서 9는 매우 그렇다로 평균값이 B고등학교는 5.73점, D남자·여자고등학교 두 학교는 5.31점이 나왔으며 상상 몰입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2> 상상 몰입도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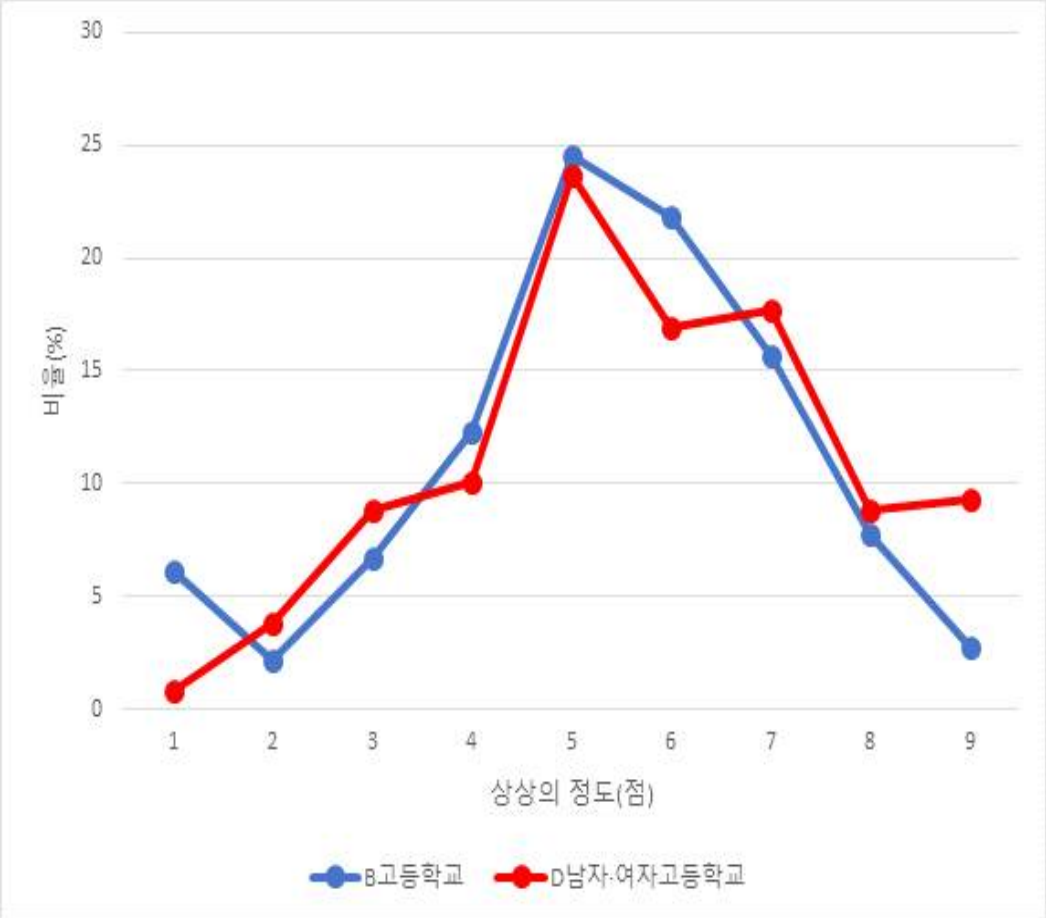
학교	N	상상 정도	비율(H) (%)	상상정도	비율(I) (%)	차이(H-I)
		6 이상		4이하		
D고	237	125	52.74	56	23.63	29.11
B고	179	86	48.04	49	27.37	20.67
비율차이 (D-B)	-		4.7		-3.74	

<표22>은 상상 몰입도 비율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값이다. B고등학교는 상상 몰입도 6이상에 총 179명 중 86명이 응답해 48.04%의 비율을 보였다. D고등학교는 상상 몰입도 6이상에 총 237명 중 125명이 응답해 52.74%의 비율을 보였다. 즉, D남자·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B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4.7%정도의 상상 몰입도가 높았다. 또 B고등학교는 상상 몰입도 4이하에 총 179명 중 56명이 응답해 27.37%의 비율을 보였으며 D고등학교는 총 237명 중 49명이 응답해 23.63%을 나타냈다. 역시 D고등학교가 B고등학교에 비해 4 이하의 낮은 상상 몰입도 비율이 3.74% 적었다.

6이상의 높은 상상 집단과 4이하의 낮은 상상 집단의 차이 정도는 B고등학교는 20.67%인 반면, D고등학교는 29.11%을 보여 결론적으로 D고등학교 실험참가자가 상대적으로 B고등학교 실험참가자에 비해 더 높은 상상 몰입도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4> 상상의 정도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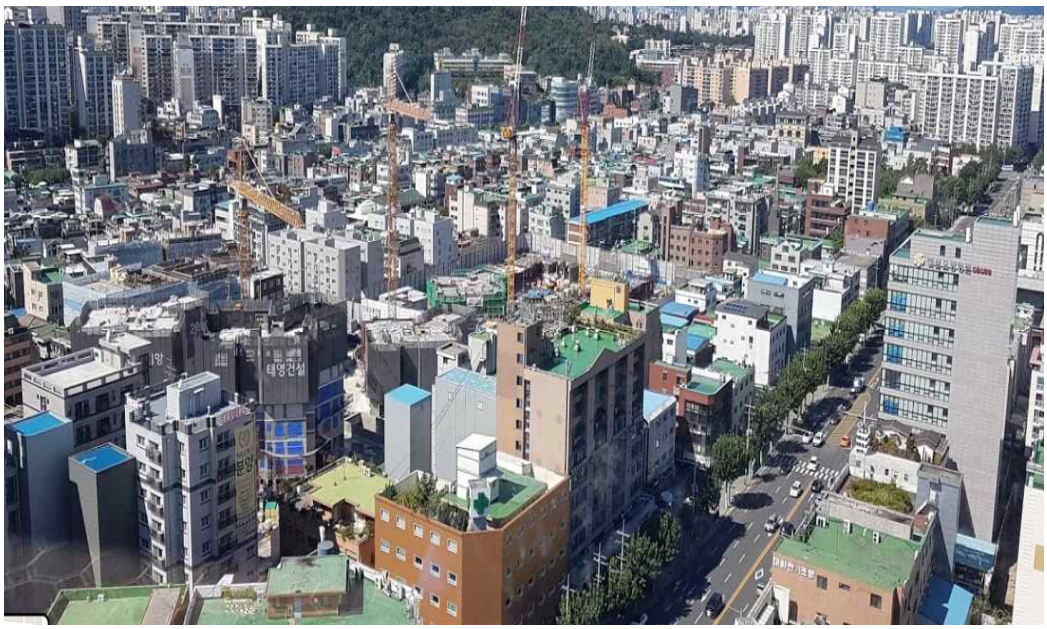
<그림4>은 두 학교의 전체 참가자 416명(B고등학교 179명, D남자·여자고등학교 237명)의 상상의 정도를 분포화 한 것이다. D 고등학교 실험 참가자들의 높은 상상 몰입도는 그래프를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두 학교 모두 중앙점수 5점을 기준으로 6점 이상의 비율이 4점 미만의 비율보다 각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6 이상의 상상 몰입도에서도 두 학교는 차이를 보이는데 상상 몰입도 6을 제외한, 7~9 사이의 몰입도 비율도 모두 D남자·여자고등학교가 높아 결론적으로 D남자·여자고등학교는 제시된 메시지 프레이밍 상황을 상상하는 일, 즉 더욱 깊은 몰입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두 결과를 종합해보면 D남자여자고등학교는 B고등학교에 비해 메시지 프레이밍에 상상 몰입 정도가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D남자·여자고등학교는 메시지 프레이밍에 더욱 고관여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묘사된 지역과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유사하기 때문에 상황적 관여도가 유의미하게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황적 관여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중요 정도, 관련성 유무, 가치 유무, 필요 정도, 관심 정도를 활용하는데(이종민·류춘렬·박상희, 2007) 이를 기반으로 해석하면 D남자·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은 텍스트에 전반적으로 관련성이 높아 높은 몰입도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해당 학교 주변의 경관을 통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는데, B고등학교학교 주변은 도시재생 사업 진행 대상지가 아니었으며, 주택 형태가 아파트 중심인 지역인 반면 D남자·D여자고등학교는 주변에 도시재생사업이 실제 진행되고 있었고 주택 형태가 빌라 위주의 저층 주거 밀집 지역으로 상상의 정도가 차이 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림5>는 Google Map을 활용하여 해당 학교를 가로지르는 주택 경관을 살펴본 자료이다.

B고등학교를 가로지르는 주택가 모습 (출처: Google Map)



D남자·여자고등학교를 가로지르는 주택가 모습 (출처: Google Map)

<그림5> B고등학교와 D남자·D여자고등학교 거주 경관 비교

결국 메시지 프레이밍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유사성이 학습자들에게 상황 몰입도를 증가시키고 이로인해 상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자신에 대한 몰입도가 증가하고 이는 개인자아존중감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습자는 학습 내용에 더욱 몰입할 수 있으며 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보다는 감정이 개입된 메시지 프레이밍에 노출될 때 개인의 자아존중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을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시선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 개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감정 개입 메시지 프레이밍에서 장점 발현과 단점 극복의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추후 면밀한 실험 디자인을 통해 두 프레임의 차이를 연구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나. 집단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에 따라 학습자의 집단자아존중감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하위 가설을 가정하였는데 첫째 하위 가설 <1-1>은 감정적(장점 발현·단점 극복) 메시지 프레이밍 텍스트를 읽은 참여자는 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을 읽은 참여자보다 집단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두 번째 하위 가설 <1-2>는 단점 극복 메시지 프레이밍 텍스트를 읽은 참여자는 장점 발현 메시지 프레이밍을 읽은 참여자보다 개인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표23> 집단자아존중감 전체 집단별 점수 비교

프레이밍 유형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중립적 프레이밍(A)	5.78	1.25	6.08	B>A,C*
장점발현 프레이밍(B)	6.34	1.12		
단점극복 프레이밍(C)	5.88	1.43		

*ρ<.05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결과인 <표23>에서 유의수준(ρ<.05)에 따라 집단간 다른 메시지 프레이밍을 제시할 때, 실험집단(장점 발현 메시지 프레이밍, 단점 극복 메시지 프레이밍)과 통제집단(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과 비교하여 집단자아존중감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장점 발현 프레이밍 집단은 중립적 프레이밍 집단과 단점 극복 프레이밍 집단에 대해 집단적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따라서 연구 가설 3-1은 부분 채택되었다.

실험집단 내에서 장점 발현메세지 프레이밍과 단점 극복메세지 프레이밍 사이에서도 유의수준(ρ<.05)에 따라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에 비해 장점 발현 메시지 프레이밍이 집단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이에 연구가설 3-2는 기각되었다.

<표24> 집단자아존중감 문항별 점수 비교

문항 번호		평균			F	Scheffe test
		중립적 프레이밍 (A)	장점발현 프레이밍 (B)	단점극복 프레이밍 (C)		
		101(n)	115(n)	127(n)		
사적	1	5.74	6.16	6.00	1.44	-
	2	5.47	6.03	5.77	3.24	B>A*
	3	6.00	6.62	6.20	3.59	B>A*
	4	5.81	6.35	6.06	3.02	-
	합계 (A)	5.75	6.29	6.01	4.30	B>A*
공적	1	5.87	6.37	5.90	2.46	-
	2	5.74	6.05	5.26	7.20	B>C*
	3	5.83	6.78	5.94	10.81	B>A** B>C*
	합계 (B)	5.82	6.40	5.70	7.26	B>A,C*
합계 평균		5.78	6.34	5.70	5.88	B>A,C*
합계차이 (B-A)		0.07	0.05	-0.31	-	-

**ρ<.001 *ρ<.05

보다 구체적으로 <표24>는 집단자아존중감의 두 가지 하위영역 사적 자아존중감과 공적 자아존중감의 문항별 점수이다. 사적 자아존중감 영역에서는 통제집단에 비해 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이 집단자아존중감이 높았다. 공적 자아존중감은 유의수준(ρ<.05)에 따라 통제집단과 단점극복프레이밍에 비해 장점발현 프레이밍이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다.

실험집단 내에 두 메시지 프레이밍(장점발현·단점극복)은 공적집단자아존중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는데, 거주지역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관한 사적자아존중감에 비해 거주지역에 대한 타인의 생각에 관한 공적자아존중감 영역에서 단점극복메세지프레이밍은 오히려 자아존중감을 저하시켰다. 박아청(2003)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 관한 평가적 인지는 타인의 평가와 정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개인도 다수의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것은 어렵다. 이때, 개인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것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중립적 프레이밍은 공적자아존중감이 사적자아존중감에 비해 0.07점 높았고, 장점발현프레이밍은 0.11점 높았다. 반면 단점극복메세지프레이밍은 역으로 공적자아존중감은 사적자아존중감에 비해 더 낮았고 그 폭도 0.31점으로 가장 크게 나온 것은 이를 지지한다.

통제집단이나 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집단을 스스로 규정할 때, 자신의 관점이나 타인의 관점에서 비슷한 정도의 영향력을 보였다. 그러나 단점극복 프레이밍 조건의 경우 스스로 거주 지역에 대해 느끼는 자아존중감보다 타인의 시선에 거주 지역이 부정적으로 비춰질 것이라 인식하는 영향력이 컸으며 이는 곧 자신의 시선보다는 타인에 시선에 의해 낮은 집단자아존중감을 유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실험참가자는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는 시영동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는 시영동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한다.'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

냈다.

즉, 자신의 시선이 개입된 사적 자아존중감에서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의 경우 통제집단보다 높은 평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시선이 개입된 공적 자아존중감에서는 통제 집단보다 낮은 평균을 보인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이 비록 지역에 대한 오해와 고정관념이더라도 지역의 단점을 인지한다는 것은 내집단의 자아존중감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해 교사들은 지역의 단점을 극복하는 사례를 제시할 때, 외부 사람의 입장이 아닌 거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관점으로 활동지를 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에 거주하는 학습자일 경우 지역의 단점이 고정관념으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에서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Ⅴ. 결론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교육에서 지역에 대한 메시지 프레이밍 방식에 따라 학습자의 장소애착감 더 나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사회적 불평등이 공간 불평등으로 투영되고 그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가 만나는 학습자들은 일렬로 서열화된 공간 불평등의 그래프의 어느 한 지점에 있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다루는 공간적 불평등이라는 지리 학습 요소가 객관적 지식으로 전달되기보다 특정 공간에 살아가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애착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이 요구된다는 문제 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10명 중 9명이 도시에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도시재생 메시지 프레이밍을 통해 크게는 거주하는 공간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특별히 도시재생을 경험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사는 학습자들에게 거주 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자아존중감을 향상하는 실험을 설계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는 광고학 등 여러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 교육 분야에서는 연구가 부족하다. 지리교육과 관련해서는 메시지 프레이밍을 통해 학습 흥미도, 태도 변화 등의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의 연장선상으로 메시지 프레이밍을 통한 장소애착감과 자아존중감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집단으로 지역의 장점을 발현하는 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과 지역의 단점을 극복하는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이라는 두 실험집단과 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의 통제집단을 설정하였다. 세 집단에 랜덤으로 배정된 실험 참가자들은 메시지 프레이밍을 통한 활동 이후 장소애착감, 자아존중감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진행된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메시지 프레이밍의 유형은 장소애착감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이나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에 비해 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은 학습자의 지역에 대한 애착감을 높인다. 따라서 지리 교과서를 제작할 때, 지역의 자랑이 될 만한 장소 찾기, 아름다운 곳 상상하기와 같이 장점이 발현되는 텍스트로 제시하면 학습자의 지역에 대한 애착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메시지 프레이밍의 유형은 개인적 자아존중감 정도에 조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D남자·D여자고등학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인적자아존중감이 높게 나왔다. D남자·D여자고등학교는 통계적으로 상상 몰입의 정도가 더 높았으며, 그 이유는 메시지 프레이밍이 제시하는 거주 공간과 비슷한 경관에 거주하기 때문에 상황 몰입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리 교과서를 제작할 때, 자신이 경험하는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을 할 수 있는 탐구 질문을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가 거주 공간에 대한 몰입을 높여 개인적 자아존중감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메시지프레이밍의 유형은 집단적 자아존중감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은 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과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에 비해 학습자의 집단 자아 존중

감을 높인다. 따라서 지리 교과서를 제작할 때 장점이 발현되는 텍스트로 제시하면 학습자의 지역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 평가하는 관점인 공적 자아존중감의 경우에서는 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이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실험연구에서 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과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것에 비하면 해석해 볼 가치가 있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단점극복메세지 프레이밍 집단은 외부 사람들이 소속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라 생각하여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난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낙후지역의 단점을 개선한 도시재생의 효과를 외부의 평가와 연계하기보다 집단 내부의 평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의 구절이 마음을 움직이기도 할만큼 텍스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은 크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중립적 메시지 프레이밍 집단에 비해 장점 발현 메시지 프레이밍이 장소애착감과 개인적, 집단적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장점발현메세지 프레이밍과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 사이는 부분적 맥락에서 장점발현 메시지의 효과가 입증 되었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장점발현,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 실험도구의 타당성 확보 여부이다. 본 실험에서는 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과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의 유의미한 차이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감정적 메시지 프레이밍 중 장점발현 메시지 프레이밍과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은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대조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종속변인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험 결과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도시재생에 관한 장점발현 및 단점극복 메시지 프레이밍이 실험참가자에게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도 있지만, 측정 도구의 한계로 효과적으로 측정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분석 가능한 측정 도구의 타당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매개변수로서 거주 지역 형태가 메시지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였다. 실험 분석 결과 D남자·D여자 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영역에서 B고등학교에 비해 높은 결괏값이 도출되었다. 즉, D남자·D여자 고등학교의 경우 장소애착감, 사적·공적 집단자아존중감은 물론이고 전체 표본에서 유의미한 통곗값이 드러나지 않은 개인자아존중감영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 사이에는 매개변수로서 거주 지역 형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메시지 프레이밍이 개인의 경험과 동일시되는 정도에 따라 장소애착감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영향 정도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셋째, 활동 중 ‘상상하기’ 효과의 정도이다. 이는 상상하기 안내가 도입된 타이밍에 대한 고려와 상상 효과 정도의 강화에 대한 고려로 살펴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학습자들이 메시지 프레이밍에 노출된 후 ‘설문

에 응답하기 직전'에 시영동에 사는 민주라고 상상하며 설문에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따라서 상상으로 인한 텍스트 몰입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 있다. 만약, 텍스트를 읽기 전에 상상하며 읽도록 제시했다면, 상상의 몰입 정도가 더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종속변수들의 값에 더 면밀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상상 효과에 관해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얼마나 상상하는지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상상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눈을 감고 상상하도록 안내하거나(Husnu and Crisp, 2011) 메시지 프레이밍에 노출된 이후 상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는 등의 다양한 장치들을 사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상상에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한다.

넷째, 사전 동질성 검증 항목의 타당성 여부이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참가자들의 동질성을 사회 흥미도 정도와 도시재생에 관한 지식 여부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사회 교과의 흥미도와 도시재생에 관한 지식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해서 실험참가자들의 장소애착감과 자아존중감 정도가 동일했다고 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장소애착감과 자아존중감을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는 항목으로 측정하는 것이 메시지 프레이밍에 노출된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추구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감정지리학에 대한 논의가 지리교육내에 계속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인간을 합리적 의사결정자로 인식한 경제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Simon(1957)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이때 인간의 실제 행동은 개개인의 '만족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즉, 인간은 직관적 영역에 의해 인지적 프레임(cognitive frame)이 변화하며 이를 토대로 현상을 바라보게 된다(심준섭·김지수, 2010). 하지만 지리 교과서는 감정적 프레이밍 대신 이성적 프레이밍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서

술되어 있고 이는 그대로 학교 현장에서도 감정의 영역을 고려하지 않은 이성적 내용의 전달에만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르면 교육은 학생들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감정지리학 관점에서 다양한 메시지 프레이밍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공간적 불평등이 필연적인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에 사는 학습자들에게도 자신의 지역을 지금보다 더 의미 있고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교육적 방법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공간을 어떻게 프레이밍(framing) 하는가는 지역에 대한 애착감과 더 나아가 자아존중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간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들이 현 교과서에서는 다소 추상적이고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사회적 중요성에 비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도가 섬세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직접적으로는 도시재생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지역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학습자료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별히 지리는 구체적으로 공간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 방법들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지속적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장소로 학교, 길과 역, 문화시설 순으로 선정된 연구 결과를 비추어봤을 때(임은진, 2011) 넓게는 다양한 장소에 대한 감정 메시지 프레이밍의 연구도 고려해봄 직하다. 결국 인간은 공간을 토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공간 위에 모든 지리적 존재가 자신의 지역을 사랑하게 된다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큰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각기 다른 지역적 환경의 모든 학습자가 자신이 사는 공간에 대한 애착감이 높아질 수 있는 메시지의 서술, 관련 탐구 질문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정 및 교과서 >

교육부, 2015,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구정화 외 9인, 2015, 중학교 사회 2, 천재교육.
박형준 외, 2015, 중학교 사회2, 천재교육.
구정화 외 9인, 2015,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육근록 외 6인, 2015, 고등학교 통합사회, 동아출판.
이진석 외 12인, 2015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학사.
정창우 외 12인, 2015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박병기 외 11인, 2015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교육.

< 논문 및 단행본 >

국토교통부, 2013,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통계청, 2014, 한국의 사회동향 2014.
김근식・이선우, 2018, “원자력수용성에 대한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2), 185-220.
김동근, 2008, “주거지역의 장소애착 형성에 관한 연구 : SEM 및 HLM을 이용한 다수준 영향요인의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동환, 2016, “Place Attachment, Community Attachment, and Local Peoples Support for Peat Land REDD Project in Indonesia”,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경, 2018,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이 삶의 목표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0(3), 53.

김민성, 2019, “체화된 인지의 의미와 지리교육에서의 활용”, 한국지리학회지, 8(1), 1-18.

김지경・박수애・이훈구, 1999,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지위가 집단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13(1), 53-64.

김지혜, 2012,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봉사활동 시간과 주관적 만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1), 41-62.

김혜숙, 1993, “한국 집단자아존중 척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3(1), 289-301

김혜원・정의철, 2017, “프레이밍 효과를 활용한 분리수거를 유도하는 디자인 컨셉 제안,” 한국HCK학회 학술대회, 980-983

류재명, 2002, “학생의 일상생활경험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지리수업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0(3), 1-16.

민보경・정우성, 2020, “행복 지역격차와 시민 행복 영향요인 연구,” 인문사회21, 11(2), 183-198

박미진, 2013, “감정이입에 따른 메시지 프레이밍이 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소연, 2015,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 효과와 마음챙김 학습을 통한 환경태도 함양”,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아청, 2003, “정체감 교섭과정에서의 교육의 역할”, 교육학연구 41(3), 69-91.

박용진, 2019,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소속감,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및 그릿(Grit)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변창흠, 2014, “행복과 공간적 정의”, 환경논총, 53, 45-51.

봉미미・김성일・Johnmarshall Reeve・임효진・이우걸・Yi Jiang・김진호・김혜진・노아름・노언경・백선희・송주연・신지연・안현선・우연경・원성준・이계형・이민혜・이선경・이선영・이지수・정윤경・Catherine Cho・황아름, 2012, 학습환경에서의 학생동기척도. 고려대학교 두뇌동기연구소홈페이지 https://bmri.korea.ac.kr/english/research/assessment_scales/list.html?id=assessment에서 인출.

성한기, 2001,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3), 33-48.

신예진, 2017,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정엽・김감영, 2014, “도시 공간 구조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비판적 재고찰과 향후 연구 방향 모색”, 한국지리학회지, 3(1), 67-87.

신종호・연은모・이유경・정은경・김명섭, 2011, “성취목표지향성, 학교소속감 및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2(4), 271-292.

심준섭・김지수, 2010, “갈등 당사자의 프레임과 프레이밍 변화과정 분석: 청주시 화장장 유치 사례”, 행정논총, 48(4), 229-261.

유수진, 2010, “메시지 프레이밍이 학습자의 지리적 가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광국・임정민, 2013, “선진국의 도시재생 흐름 고찰과 시사점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48(6), 521-547.

이기령, 2012, “지리 교육 정보 디자인에서 긍・부정적 이미지 사진의 차별적 프레이밍 효과 : 공정무역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영아, 2019, “우리나라 도시재생 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 2013~2018년 도시재생 관련 연구 동향 분석”, 공간과 사회, 69(69) 192-232.

이용재, 2008, “지역사회 정체성과 상대적 박탈감이 스포츠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은경・박성연, 201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48, 101(23).

이명천・나정희・김지혜, 2006, “흡연 여부와 메시지 프레이밍에 따른 금연광고 효과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8(3), 210-236.

이봉민, 2012, “상상 접촉을 활용한 청소년의 외집단에 대한 집단괴롭힘 태도 개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종민・류춘렬・박상희, 2007, “광고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에 관한 연구: 개인적 관여도와 상황적 관여도의 역할 비교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3), 282-307

이진희, 2011, “이미지를 이용한 프라이밍효과가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은진, 2011, “장소에 기반한 자아 정체성 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107-121.

장미향・성한기, 2007,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경험과 사회정체성 및 사회지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1), 77-87.

조명래, 2011, “만들어진 ‘공간 불평등’, 지역격차”, 월간복지동향, 157, 4-9.

조형오・이건세・윤수현, 1999, “자궁암 검진광고의 메세지 프레이밍 효과분석 : 사전 건강신념과 메세지 프레이밍 기대수준의 매개역할”, 광고학연구, 10(3), 123-148.

전수경, 1999, “고등학교 도덕풍토의 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진성조, 2015, “시간 제약 상황에서 프레이밍이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자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진홍근・이종민, 2014, “지식유형별 광고메세지 프레이밍 효과 연구: 금연 광고를 중심으로”, 광고연구, 103, 176-213

최재영, 2017, “지리수업을 위한 이타적 과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재헌, 2005, “세계화시대의 지역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2), 1-18.

한동균, 2014, “스키마 이론에 근거한 사회과 지리 학습의 재해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2(1), 57-77.

한동균, 2016, “장소 스키마 이론의 사회과 지리교육적 함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3), 1-17.

한성희, 2018, “상상 접촉 활동이 학습자의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The Children’s Society, 2019, The Good Childhood Report 2019

Bachman, J. G., and O'Malley, P. M., 1984, Black-white differences in self-esteem: Are they affected by response styl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3), 624-639.

Baumeister, R. F., and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

Celsi, R. L. and Olson, J. C., 1988, The role of involvement in attention and comprehension process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5(2), 210-224.

Clark III, R. D. and Maass, A., 1988, The role of social categorization and perceived source credibility in minority influenc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5), 381-394.

Colby, C. C., 1933, Centrifugal and centripetal forces in urban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23(1), 1-20.

Crocker, J. and Luhtanen, R., 1990, Collective self-esteem and in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1), 60.

Diener, E. and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653-663.

Dovidio, J. F., Eller, A., and Hewstone, M., 2011, Improving Intergroup Relations through Direct, Extended and Other Forms of Indirect Contact,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4(2), 147-160.

Ehrlich, S., Levine, S., and Goldin-Meadow. S., 2006, The Importance of Gesture in Children's Spatial Reas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2(6), 1259-1268.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Engelen, J. A., Bouwmeester, S., de Bruin, A. B., and Zwaan, R. A., 2011, Perceptual simulation in developing language comprehensio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10(4), 659-675.

Fien, J., 1979, Towards a humanistic perspective in geographical education, *Geographical Education*, 3(3), 407-421.

Fried, M., 2000,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of plac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0(3), 193-205.

Gaertner, L., Sedikides, C., Luke, M., O'Mara, E. M., Iuzzini, J., Jackson, L. E., Eckstein, C., Huajian, and Wu, Q., 2012, A Motivational Hierarchy Within: Primacy of the Individual Self, Relational Self, or Collective Self?,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8(5), 997-1013.

Goodenow, C., 1993, The Psychological Sense of School Membership among Adolescents: Scale Development and Educational Correlates, *Psychology in the Schools*, 30(1), 79-90.

Gregory, W. L., Cialdini, R. B., and Carpenter, K. M., 1982, Self-relevant scenarios as mediators of likelihood estimates and compliance: Does imagining make it so?,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1), 89.

Hamnett, C., 2003, Gentrification and the Middle-class Remaking of Inner London, 1961 - 2001, *Urban Studies*, 40(12), 2401-2426.

Harter, S., 1988, Developmental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Intergrative processes and socialization: Early to Middle Childhood*, 45-78

Hummon, D. H., 1992, *Community attachment: Local sentiment and sense of place. In: I. Altman, & S. M. Low. (Eds.), Place attachment (pp. 253 - 278)*. New York, NY: Plenum Press.

İmamoğlu, Ç., 2009, The role of schemas in understanding places, *Journal of the Faculty of Architecture*, 26(2), 153-173.

Kenway, J., and Youdell, D., 2011, The Emotional Geographies of Education: Beginning a Conversation, *Emotion, Space and Society,* 4(3), 131-136.

Knez, I., 2005, Attachment and Identity as Related to a Place and Its Perceived Climat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5(2), 207-218.

Kopel, D., 2014, Spatial Schema Transfers to Similar Place: A Case of Disney Theme Parks,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https://stars.library.ucf.edu/honorstheses1990-2015/1585.

Korpela, K. M., 1989, Place-identity as a product of environmental self-regul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9(3), 241-256.

Kyle, G., Graefe, A., Manning, R., and Bacon, J., 2004, Effects of place attachment on users' perceptions of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a natural setting,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4(2), 213-225.

Ley, D., 1986, "Alternative Explanations for Inner-City Gentrification: A Canadian Assessmen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6(4), 521-535.

Luhtanen, R., and Crocker, J., 1991, Self-esteem and intergroup comparisons: Toward a theory of collective self-esteem, *Social Comparis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211 - 234.

Luhtanen, R., and Crocker, J., 1992, A collective self-esteem scale: Self-evaluation of one's social ident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3), 302-318.

Manzo, L. C., 2003, Beyond house and haven: Toward a revisioning of emotional relationships with plac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3(1), 47-61.

Marcia, J. E., 1967, Ego Identity Status: Relationship to Change in Self-esteem, "general Maladjustment," and Authoritarianism, Journal of Personality, 35(1), 118-133.

Meier, B. P., Robinson, M. D., Crawford, L. E., and Ahlvers, W. J., 2007, When "light" and" dark" thoughts become light and dark responses: Affect biases brightness judgments, *Emotion*, 7(2), 366.

Midgley, C., Maehr, M. L., Hruda, L. Z., Anderman, E., Anderman, L., Freeman, K. E., and Urdan, T., 2000, *Manual for the patterns of adaptive learning scal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Mruk, C. J. J., 2006, *Self-esteem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3rd ed.* New York: Springer.

Pretty, G. H., Chipuer, H. M., and Bramston, P., 2003, Sense of place amongst adolescents and adults in two rural Australian towns: The discriminating features of place attachment, sense of community and place dependence in relation to place identit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3(3), 273-287.

Proshansky, H. M., Fabian, A. K., and Kaminoff, R., 1983, Place-identity: Physical world socialization of the self,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1), 57-83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Smith, N., 1979, Toward a theory of gentrification a back to the city movement by capital, not peopl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45(4), 538-548.

Stokowski, P. A., 2002, Languages of place and discourses of power: Constructing new senses of pla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4), 368-382.

Stets, J. E., and Burke, P. J., 2000, Identity theory and social identity theor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3(3), 224-237.

Tajfel, H., 1978, Social categorization,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mparison,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 61-76.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1), 1-39.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and Wetherell, M. 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Basil Blackwell.

Turner, J. C., and Onorato, R. S., 1999, Social identity, personality, and the self-concept: A self-categorization perspective, *The Psychology of the Social Self*, 11-46.

Tversky, A., and Kahneman, D., 1979,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2), 263-292

Tversky, A., and Kahneman, D., 1981,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211(4481), 453-458.

Williams, Daniel R, and Vaske, Jerry J., 2003, The Measurement of Place Attachment: Validity and Generalizability of a Psychometric Approach, Forest Science, 49(6), 830-840.

부록 1. 실험안내

<실험안내>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지리 수업 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지리 텍스트 개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여러분께서 답하신 것은 단지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평소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이므로
이 문항들은 정답이 없습니다.

본 활동과 설문은 총 7쪽이며, 소요 시간은 10분 정도입니다.
제시된 내용을 잘 읽고, 질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답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는 고등학교 지리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문 참여 동의 여부를 해당란에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 참여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이민주

부록 2. 사전 동질성 검사

▣ 다음 설문을 보고, 물음에 응답해 봅시다.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당신은 고등학교 몇 학년 입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　다음 문항을 읽고, 설명에 동의하면 O, 동의하지 않으면 X에 표시해주세요.

1. 나는 지역 간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공간 불평등이라고 생각한다. (O / X)

2. 나는 재개발 사업은 개발 이익이 모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O / X)

3. 나는 도시재생이 해당 지역 거주 주민 중심의 지역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한다. (O / X)

4. 나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공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O / X)

5. 나는 각 지방 자치단체들이 지역 발전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도시재생의 사례라고 생각한다. (O / X)

▣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숫자에 √ 표를 해주세요.

1. 나는 사회 과목이 흥미롭다.

1	2	3	4	5	6	7	8	9
전혀 아니다								정말 그렇다

2. 나는 사회 과목을 공부할 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다.

1	2	3	4	5	6	7	8	9
전혀 아니다								정말 그렇다

3. 나는 수업시간 외에도 사회 과목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

1	2	3	4	5	6	7	8	9
전혀 아니다								정말 그렇다

4. 나는 사회 과목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1	2	3	4	5	6	7	8	9
전혀 아니다								정말 그렇다

5. 나는 사회 과목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될 때 기쁘다.

1	2	3	4	5	6	7	8	9
전혀 아니다								정말 그렇다

부록 3. 중립적 메세지

▣ 다음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시영동의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요즘 민주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 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이다. 이 사업은 도시 환경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시영동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시영동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주택 200여 채가 북한산 자락에 모여 사는 도심 속 대표적 산동네**로 **가파른 계단과 구부러진 옛 골목길**이다. 민주는 **시영동을 위해 조직**된 '공간 기획단'에 참여해 마을 여기저기에 들꽃을 심었다. 얼마 전에는 **동네의 담벼락에 물감과 페인트를 이용해 벽화** 작업을 진행했다. 공간기획단의 활동 덕택으로 시영동은 점차 활력을 되찾아 '살고 싶은 마을'로 선정되었다.

1. <보기> 단어들의 순서를 재배열하여 윗 글의 밑줄 친 문장과 **똑같이** 채우세요.

이 사업은 ____ ____ ____을 통해 살기 좋은 시영동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보 기>

① 개선 ② 도시 ③ 환경

2. 윗 글에서 살기 좋은 시영동을 위한 사람들의 노력을 **한 가지 이상** 적어 봅시다.

_____

_____

부록 4. 장점발현 메세지

▣ 다음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시영동의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요즘 민주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 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굴하여 살기 좋은 시영동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시영동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저층 주택 200여 채가 모여 사는 도심 속 청정지역**으로 **모퉁이에 심어진 소박한 화초들, 도심이 한눈에 보이는 탁트인 경관**이다.

민주는 **시영동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공간기획단'에 참여해 **볕 좋은 자투리땅**에 들꽃을 심었다. 얼마 전에는 **동네 도서관 담벼락에 마을 풍경을 담은 예쁜 벽화를 그려** 더 산뜻한 공간으로 바꾸었다. 공간기획단의 활동 덕택으로 시영동은 **지역의 아름다움을 발굴**하여 활력을 되찾아 '살고 싶은 마을'로 선정되었다.

1. <보기> 단어들의 순서를 재배열하여 윗 글의 밑줄 친 문장과 **똑같이** 채우세요.

이 사업은 지역의 _____ _____을 _____하여 살기 좋은 시영동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보 기>

① 발굴 ② 숨겨진 ③ 아름다움

2. 윗 글에서 살기 좋은 시영동을 위한 사람들의 노력을 **한가지 이상** 적어봅시다.

_____

_____

부록 5. 단점극복 메세지

▣ 다음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시영동의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요즘 민주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 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여 살기 좋은 시영동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시영동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낡은 저층 주택 200여 채가 모여 사는 도심 속 산동네**로 **길가에 낀 이끼와 녹슨 철문, 가파른 계단과 미로 같은 골목길**이다.

민주는 **시영동의 오해와 편견을 개선**하는 '공간기획단'에 참여해 **버려진 자투리땅**에 들꽃을 심었다. 얼마 전에는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던 장소에 예쁜 벽화를 그리자 무단 쓰레기 투기가 사라졌다.** 공간기획단의 활동 덕택으로 시영동은 **지역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여 활력을 되찾아 '살고 싶은 마을'로 선정되었다.

1. <보기> 단어들의 순서를 재배열하여 윗 글의 밑줄 친 문장과 **똑같이** 채우세요.

이 사업은 지역에 대한 _____ 와 _____ 을 _____ 하여 살기 좋은 시영동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보 기>

① 극복 ② 오해 ③ 편견

2. 윗 글에서 살기 좋은 시영동을 위한 사람들의 노력을 **한 가지 이상** 적어봅시다.

_____

_____

부록 6. 실험 설문지

※ 당신이 **<u>시영동에 사는 민주</u>**라고 **<u>상상하며</u> 응답해주세요.**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숫자에 √ 표를 해주세요.

1.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8	9
전혀 아니다								정말 그렇다

2. 나는 나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8	9
전혀 아니다								정말 그렇다

3.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8	9
전혀 아니다								정말 그렇다

4.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8	9
전혀 아니다								정말 그렇다

5.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전혀 아니다								정말 그렇다

6. 나는 가끔 내가 시영동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유감스럽다.

1 2 3 4 5 6 7 8 9

전혀 아니다 정말 그렇다

7. 일반적으로 나는 내가 시영동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1 2 3 4 5 6 7 8 9

전혀 아니다 정말 그렇다

8. 전반적으로 나는 내가 사는 시영동이 가치롭지 못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6 7 8 9

전혀 아니다 정말 그렇다

9. 나는 내가 사는 시영동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낀다.

1 2 3 4 5 6 7 8 9

전혀 아니다 정말 그렇다

10.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는 시영동이 무능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8 9

전혀 아니다 정말 그렇다

11.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는 시영동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1 2 3 4 5 6 7 8 9

전혀 아니다 정말 그렇다

12.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는 시영동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8 9

전혀 아니다 정말 그렇다

13. 나는 내가 시영동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8 9

전혀 아니다 정말 그렇다

14. 나와 비슷한 사람은 시영동에 적응하기 어렵다.

1 2 3 4 5 6 7 8 9

전혀 아니다 정말 그렇다

15. 나는 때때로 시영동 주민이 아닌 것 같다.

1	2	3	4	5	6	7	8	9
전혀 아니다								정말 그렇다

16. 나는 시영동에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과 매우 다르다고 느껴진다.

1	2	3	4	5	6	7	8	9
전혀 아니다								정말 그렇다

17. 나는 다른 동네로 이사하고 싶을 때가 있다.

1	2	3	4	5	6	7	8	9
전혀 아니다								정말 그렇다

18. 나는 시영동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1	2	3	4	5	6	7	8	9
전혀 아니다								정말 그렇다

당신은 **시영동에 사는 민주**라고 **얼마나 상상이 잘** 되었나요?

1	2	3	4	5	6	7	8	9
전혀 아니다								정말 그렇다

Abstract

The impact of local message framing on learner's self-esteem

- based on urban regeneration

Lee Min Ju

Geography Maj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lf-esteem is a key factor in determining a person's self-belief and confidence in life. It plays a major role in a person's attitude and sense of direction, especially during the stages of adolescence. There are several factors that influence self-esteem, some of which are based on the fact that human beings are inherently spatial. For example, a person's residential area or community tends to influence their self-esteem. Consider two key concepts: your degree of self-identity and geography education. Both of these concepts can affect students' self-esteem.

However, while humans understand space subjectively and personally, the space presented in textbooks is objective and rational. Thus, how can we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a learner's self-esteem, and while doing so, also help them to see their living space differently? For this reason, we think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and through education, learner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growing their self-identity. At this point, it is important to present a properly framed learning situation to the students. This is because, even if it is the same content, it can convey conflicting positions to learners depending on how the teachers express learning situations and learning materials, which can ultimately affect learners' self-identity.

Social inequality is projected into spatial inequality, and at the same time, our society is trying to inject new power into space through urban regeneration. I am especially interested in urban regeneration because cities are home to nine out of ten people. After rapid industrialization, the regional gaps within cities have become noticeable, and areas where low-income people reside are exposed to poor living conditions due to aging and insufficient infrastructure (Basic Urban Regeneration Policy, 2013).

In line with that, it was assumed that the self-esteem of learners in the classroom would be positively impacted if they focused on the attractiveness of the residential area itself rather than on th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Therefore, the study specifically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types of message framing affect learners' self-esteem. Message framing is divided into emotional and neutral messages. Emotional messages are divided into messages that

express strengths and overcome weaknesses. Accordingly, there are three messages that express advantages, overcome disadvantages, and neutral messages. After exposure to each priming, subsequent surveys measured the learner's changed degree of place attachment and self-respect.

Analysis shows that the advantage expression message framing effect rather than neutral message framing for residential areas affects the learner's place attachment and collective self-esteem formation. At this time,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participation in the proposed message framing, the higher the experimental participants' imaginative immersion, in which case it also affected their collective self-esteem and individual self-esteem.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o learners the importance of looking at residential areas from a beautiful perspective. In particular, it is possible to leave open the possibility that the effect may be higher for students in relatively underdeveloped areas who are experiencing urban regeneration. We also propose the need for an emotional approach rather than a neutral and r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living space in classroom space.

keywords : Emotional geography, urban regeneration, message framing, individual self-esteem, collective self-esteem, local attachment.

Student Number : 2019-25255